

2002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실천적 의미

Calvin 's Views And Practical Meanings
In Relation of the Civil Government to the Church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김진국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실천적 의미

Calvin 's Views And Practical Meanings
In Relation of the Civil Government to the Church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 月 日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組織神學專攻

김진국

김진국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을 判定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2 년 12 월

I. 서론 -----	3
A. 문제제기 -----	3
B. 연구목적 -----	4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II. 본론 -----	8
A.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들 -----	8
1. 다른 교파의 견해 -----	8
a. 카톨릭 -----	9
b. 영국성공회 -----	10
c. 재세례파 -----	11
2.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	12
a. 루터 -----	12
b. 쾰링클리 -----	20
B.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 -----	23
1. 세속정치와 교회의 독립성 -----	24
a. 세속정치와 교회관계에 대해 칼빈신학의 전제해야 할 원리 -----	25
1)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시민정체의 구별 -----	25
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	26
3) 저항방식으로서 오직 성경 -----	29
b. 세속정치와 교회의 권위 -----	32
1) 세속정치의 권위 -----	32
2) 교회의 권위 -----	36
c. 세속정치와 교회의 임무 -----	37
1) 세속정치의 임무 -----	37
2) 교회의 임무 -----	41

2. 세속정치와 교회의 상호연관성 -----	42
a. 세속정치와 교회의 의무 -----	42
1) 세속정치는 교회에 대하여 (관원의 임무와 자세) ----	42
2) 교회가 세속정치에 대하여 (목회자의 임무와 자세) --	45
b.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서의 무저항 -----	47
1) 세속정치에 대해 교회의 무저항 -----	47
2) 예외적인 교회의 세속정치에 대한 저항 -----	49
C.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견해의 실천적 의미 -----	52
1. 세속정치와의 교회의 독립성 -----	55
2.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속정치와 교회 ----	57
a. 교회가 세속정치에 대하여 -----	57
1) 세속정치에 대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고백하는 교회--	57
2) 세속에 대해 오직성경으로 전파하는 교회 -----	60
3) 세속정치에 대하여 오직성경으로 저항하는 방식 -----	63
4) 세속정치에 대하여 기도하는 교회 -----	67
5)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세속정치가를 양육하는 교회 ---	68
6) 칼빈의 문화적 관조주의 태도를 가지는 교회 -----	70
b. 세속정치가 교회에 대하여 -----	73
1) 교회의 공적예배와 순수한 교리를 보존해야 세속정치-	73
2) 우상숭배와 미신을 억제하는 세속정치 -----	75
3) 도덕법에 근거한 실정법의 제정과 집행에 대해 ---	78
III 결론 -----	73
참고문헌 -----	86

I. 서론

A. 문제제기

16세기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속에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갔다. 그러나 그런 개혁주의 진리가 영국에서는 꽃피우지 못했고, 스코틀랜드는 조금 그 내용이 심어졌으며,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 후에 개혁교회의 모습이 놀라우리만큼 찾기 어렵게 되었다. 16, 17세기의 꽃 피웠던 신학과 개혁교회의 모습이 계속 견고히 서 있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을 몰락시킨 원리들이 교회와 신학자들 안에서 변질을 초래했다.¹⁾ 그로 인해 교회는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세속정치가들이 교회를 장악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들에게 심한 핍박과 공격을 하였다. 때로는 세속정부는 무섭고 거센 핍박을 가하기도 했고, 때로는 유혹하여 진리를 희미하게 하기도 했다. 교회는 이런 공격 앞에 힘을 잃게 되었고, 대다수의 개혁교회는 음으로 숨게 되고 피난하게 된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이 훼손되어 찾기 어렵게 된 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당하였지만, 세속정치의 핍박과 회유라는 외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본 논문을 연구해 갈수록 핵심을 놓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속정치가들이 전에 마귀의 역사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귀가 세속정치가들로 교회에 위협하고, 빼앗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에 있었다. 그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말씀과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다. 결국 마귀가 세속정권을 수단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세속정치의 공격과 회유 속에서 사람의 가치로 남는 생의 목적을 굳게 지키고 살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시대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워 두셨다.(롬11:4) 하나님은 역사속에 계속 은혜로 택하신

1) 김영규 교수는 '바빙크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평가' 라는 글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훼손하고 몰락시킨 원리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하나, 1998, pp. 118-124)

비가시적인 자신의 백성을 남기시고,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고 있다. 이런 역사속에 우리 안에서 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과 아담이후의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그 분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알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요, 더 실제적으로 죄임을(히12:4)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열방과 민족은 통의 한 방울 물같고(사40:15)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빈 것 같음을(사40:17)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이런 지식을 이미 알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수많은 역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세력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한 것을 과거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마귀가 교회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는 진리안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인식 가운데 세속정치와 교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세속정치와 영적인 믿음의 교리의 관계에 대하여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그의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이며,²⁾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B. 연구목적

이제까지 칼빈의 연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세속정치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이를 연구하는 신학자의 신학에 따라 그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칼빈을 오해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칼빈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연구가 필요로 함을 느끼고,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찾아 본 논고를 쓰게 되었

2) 칼빈이 영적인 교리들과 세속통치를 연결시키는 이유는 그 당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자들과 다른 한 편 군주들에게 아첨하여 하나님 자신의 통치에 대립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해독을 억제하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빈의 염려대로 실제로 순수한 믿음이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경건에 대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Inst. 4. 20. 1.)

다.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로 인해 이미 과거 역사속에 큰 진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그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 인류는 이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참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속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교회밖에 줄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대답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440년전에 프랑스의 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칼빈의 탁월한 세속정치와 교회와의 견해를 이해하고, 실천적의미를 발견하여, 한국과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와 세계의 모든 교회를 향해, 교회와 세속정치의 실체를 알게 하며, 교회와 세속정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논고는 작성될 것이다.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존의 연구의 주된 경향은 칼빈의 교회관과 국가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³⁾ 이런 논문은 당시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을 두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바른 교회관의 확립이며, 둘째는 현실참여 운동의 바른 신학의 정립이다. 논자들이 보았던 한국교회 당시의 문제는 개인구원만을 관심 갖는 비현실참여의 경향과 교회의 지나친 정치적인 참여라는 양극단적인 입장이었다. 이런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혼란한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논자들은 먼저 칼빈의 교회와 국가관을 설명하고, 그 후에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논문의 방향은 주로 현실참여로 결론을 짓든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런 논문들은 칼빈의 국가와 교회관을 고찰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양자를 다 고려하는 중용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한편으로 이 논문들이 칼빈신

3) 홍정의, “칼빈의 신학사상을 통해 본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96). 이종성, “칼빈의 교회와 국가”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77), 배종일, “칼빈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1). 김이태 “칼빈의 교회와 국가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학의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을 논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신학의 전제해야 할 원리가 있다. 둘째, 칼빈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이해⁴⁾와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교회와 국가를 생각할 때도, 신론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것을 살핀 논자는 이 칼빈 신학의 독특한 점을 고려하며 본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다른 한 부류의 기존의 연구방법은 칼빈의 국가관⁵⁾만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논문들은 칼빈이 보는 국가의 권위와 임무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것과 복종을 함에 있어 제한이 되는 경우를 서술하고 있다. 이런 논문들도 역시 국가의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돕고 있으나 앞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칼빈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또 다른 부류는 칼빈의 국가관이나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따로 분리하여서 직접 현실세계와 관련하여 연구하려는 현대적인 경향도 있다.⁶⁾ 이런

4) 이와 관련하여 칼빈에 있어서 오직 성경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펴 보아야 할 원리는 첫째, 성령의 내적 조명(*interius Spiritus testimonium*)을 따라 확신케 됨을 믿었다. 둘째, 그는 성경 본문의 모든 비교들 안에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Consilium Dei*) 혹은 성령의 뜻(*Consilium Spiriti sancti*)을 찾고 있다. 셋째,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scripturam sui ipsius esse commentarium*) 넷째, 적정과 절도의 원리의 규범(*Regula modestate et sobrietatis*)을 지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칼빈에 있어서 오직 성경에 대한 김영규교수의 표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오직(*sola*)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전 삶에 있어서 주의 깊고 절제 있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칼빈에게 중요했다.” “성경의 자기 해석론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해석학적 규범을 통하여 “전 기독교 교리(*tota doctrina christiana*)”와 “기독교철학의 기초(*fundamentum christianae philosophiae*)”를 굳게 새우기를 원했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이런 확고한 원리에서 출발하여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혹은 그 성경의 증거들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확실하게 침묵하기를 원했다.” (김영규,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신학정론, 제11권 2호, 1993)

5) 한철하, “칼빈의 정치론”, 신학지남, 1962. 정성구, “칼빈주의와 정치”, 신학지남, 1994. 신복운,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1973, 6월호 등의 논문들이 있다.

6) 한스술, 「종교개혁과 정치」, 황정욱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의 다수의 논문. (Cf. “... 현세적 정치, 경제사상 중심으로 연구하려는 화란신학적 일반은총의 영향도 많다.(최근의 신학적 유행이다.)“ 저자는 칼빈의 사상의 중심을 오해하고 있는 예를 몇가지 더 기록하고 있다. 박해경, 「기독교교리신학사」, 서울: 이레서원, 2000, p. 226.)

논의들은 칼빈이 가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보지 못하고, 국가와 경제의 영역을 따로 조각내어 설명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칼빈의 신학전체에서 이해하지 않고, 칼빈의 역사적 사실중에 칼빈의 세속정치를 재구성하여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이해로 본다면, 마치 다윗의 범죄를 보고 다윗 전체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적인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고, 그의 행적만 보고, 그의 글을 분석해서는 그에 대해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의 부분적인 행적으로 칼빈신학을 살피지 말고, 칼빈의 견해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그의 설교와 주석을 보고 그의 신학적 입장을 살피고 나서 편지와 교회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목회에 얼마큼 실현되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런 방법과는 반대로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신학을 선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것은 칼빈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고 하겠다. 단지 그를 역사적인 접근만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그의 일부분을 보고 칼빈의 전체로 확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칼빈을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리하여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칼빈의 세속정치와 교회에 관계에 대한 이해를 칼빈신학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것이며, 칼빈의 신학의 독특성 속에서 세속정치의 이해를 정리하려고 한다.

먼저,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다른 교파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칼빈 동시대에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칼빈은 그들과 같은 점이 무엇이며,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후에 칼빈의 견해를 살펴 볼 것이다. 칼빈의 교회와 세속정치에 대한 그의 이해를 살펴보려면 그의 기독교강요⁷⁾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주석과 설교와 서신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칼빈의 견해를 종합하여, 실천적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제시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그가 세속정치와 어떤 관계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었는지 찾을 것이다. 그와 함께 실천적 입장에서 세속정치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 대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과 중국과 북한등에

7) 라틴어본은 중요한 문장이나 핵심적인 단어에 한해서 한글본과 영어본을 서로 비교, 대조하며 부분적인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논자의 한계를 밝힌다.

대해 몇가지 예를 제시하고, 세속정부와 교회가 취해야 할 입장을 세우고자 한다.

II. 본 론

A.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들

이 장에서는 역사적인 고찰을 하지 않고, 교회사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위주로 다룰 것이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고, 칼빈의 견해와 비교, 대조하기 위해 다루는 것이므로, 다른 교파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세속정치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들만을 다룰 것이다. 소제목 없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될 것이다. 먼저는 세속정치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세속정치와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세속정치와 교회의 서로간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저항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1. 다른 교파의 견해

세속정치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많은 견해들이 있었다. 각기 교파들은 자신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도용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왔다. 천주교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권위로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전통과 공교회와 이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인다.⁸⁾ 재세례파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언약의 통일성

8) Inst(1536). 6. B. 17. "즉 교회는 신조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맹신적이든 잘 이해하고 믿든지간에 그들의 모든 교리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여 그들 마음대로 교리를 짜고, 나중에는 이를 신조로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칼빈이 카톨릭의 원칙을 비판한 내용이다.)

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성공회는 세속정치에 대한 성경이해에 대해 잘못된 입장을 가지어 세속정치가 교회에까지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사도직을 성직자에게 돌리고, 교회법과 성직자에 대한 권위와 직임에 오류를 가졌다. 이런 다양한 교과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면 칼빈의 바른 입장이 더욱 드러날 것이다.

a. 카톨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가 뿐만 아니라 교회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형태를 실현시킨 후,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형성된 그런 잘못에 대해 시정하도록 노력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며,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라고 말했다. 마16:19의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의 감독이 곧 교황이며,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온 교회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치리권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교황과 로마교회에 절대복종을 요구받았다. 그 후 교황권(sacerdotium)과 제왕권(imperium)과의 대결은 계속되었다.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73-85)는⁹⁾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한 권한을 모든 교회와 사람과 사건에 적용된다는 보편적 통치(regimen universale)를 주장하였다. “교황주의자들은 교황에게 지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한이 있어서, 교황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속 정부의 영역까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중세교회때에 카톨릭은 암브로시우스¹¹⁾와 어거스틴의 신학에 근거하여 교회를 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국가를 지배하는 교황주의의 정치형태를 실현시켰다.¹²⁾ 중세신학의 완성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중세의 정치형태인 신정정치의 원리를 수립했다.

9)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총신대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33.

10) 오덕교, 「장로교회사」, (경기: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p. 11.

11)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0), p. 267.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교회 일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교회 문제는 교회 스스로가 관장하고 해결한다고 주장하였다.”

12) 김명혁,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 「교회와 국가」, 한국 기독교 문화 진흥원 편, (서울: 엠마오, 1991). p. 85.

아퀴나스는 이층구조적 자연신학으로서 국가를 자연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은 중세의 교회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했다.

그는 세속통치가 독재의 형태로 운영될때는 국민은 반항할 수 있다고 했다. 백성이 통치자에게 불복종할 수 있을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때라고 지적하였다. “로마카톨릭안에서는 군주시해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³⁾

b. 영국성공회

카톨릭주의나 영국성공회는 주교제도이다. 이 이론은 교회내에서 치리권을 수행하는 사도권의 연속성을 가정한다. 그 치리권은 진정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사도적-감독(aposle-bishop)에 의해 임명된 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영국국교회나 High Church이다.¹⁴⁾ 이들은 세계의 서열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조직의 형태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교회를 국가의 다스림안에 두고 있어 국가의 왕이 교회를 통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 성공회의 정치¹⁵⁾는 성공회 고위성직자(the Prelate)는 하나이나 자신의 교구안에서 자신에게 고유한 임명권과 치리권을 주장한다. 그들은 영원한 회장직과 공의회 의장의 항존적인 특권을 주장하면서, 교회 회중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다. 성공회 고위 성직자들은 목사들과 장로나 집사의 권위와 직책을 부정한다. 성공회 고위성직자들은 참사회든, 교구대회, 국가대회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음을 거부한다. 많은 성공회 고위성직자들이 스스로 복음설교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설교하지 않는 독경 목회직을 소지하고 있다. 성공회 고위성직자의 권세는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고 의회의 상원의원이며 국가 안에서 자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법과 국법의 두 힘(potestatem utriusque

13)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31.

14) 찰스 핫지, 「개혁신학의 교회론」, “장로주의란 무엇인가?”, (경기: 개혁파조직신학회, 2002). p. 222.

15) 김영규교수는 조지길레스피의 책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잘 정리된 영국성공회의 정치와 장로교 정치제도를 20가지로 비교한 것을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b.에서는 이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김영규, op. cit., pp. 130-133)

gladii)을 가지고 있다.

후에 에라투스주의와 관계가 되는데, 이 사상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국가교회에서 세력을 잡았다. 그리하여 위정자는 의무적으로 교회를 지지하며, 교직자들을 임명하여, 교회법을 정하며, 그 실시를 감독하라고 한다.¹⁶⁾

c. 재세례파¹⁷⁾

제세례파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와 사회의 뚜렷한 대치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속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었다.

토마스 뤼처는 기본적인 교리를 사회정화를 부르짖는 농민들의 소망과 연결시켰고, 메노시몬스(Menno Simons)는 종교개혁에 대한 제세례파들의 거부를 대변하였다. 이들은 평화주의를 기독교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했다. 그래서 무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¹⁸⁾ 그런데 뤼스터의 재세례파들은 무력을 사용해 정치권력을 전복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제세례파안에서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

로버트 크라이더는 재세례파의 국가관을 요약하였다.

“첫째로 재세례파들은 본질적으로 세상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 왕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날카롭게 분리된다. 둘째로 재세례파들은 관리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임을 주장하나, 오직 비기독교인만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점에서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달랐다. 셋째로 제세례파들은 관리들은 세상을 통치하나 기독교인들은 종이기 때문에 관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로 제세례파들은 정부가 세운 교회는 성경의 교훈을

16) A.A. 핫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김종흡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 392.

17) cf. 김성봉교수의 소논문 “제세례파에 대한 칼빈의 비판”를 보라. 김성봉외, 「성령과 교회」,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엮음, (서울: 하나, 1996).

18) 유스토 L.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은성출판사, (서울: 1995), p. 90 “만약 터어키인들이 침입하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명, 혹은 가족들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¹⁹⁾

앞에서 말한 4가지 이외에도 3가지를 더해서 7가지로 제시했다. 제세례파의 큰 문제점은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와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질서를 위협하였다. “이들은 교회와 세속 사회가 대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권력 구조가 교회 속으로 이전되어서는 안된 것을 암시하였다.”²⁰⁾ 기독교신자들은 일체의 맹세와 서약을 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요구하는 직위를 갖는 것을 반대했고, 군복무도 반대했다. 그러나 성경에 반대되지 않는 한 세속 당국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모두 제세례파를 격렬히 반대했고, 카톨릭지역에서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였고, 취리히 의회정부도 그들을 사형을 처하기도 했다. 칼빈이 당시에 경계했던 대상중에 하나가 제세례파이다. 칼빈도 제세례파와 같은 분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에서 지나쳐 서로를 분리시키고 국가를 뒤집어엎으려 했으며, 도파했다. 그에 대해 루터와 쾰렌글리는 모두 교회와 국가가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였다.

2.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a.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이므로 그의 저서 속에 나타난 내용을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다룰 것이다.

1) 세속정치와 교회의 권위

루터는 두 정부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 두며, 두 정부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영적정부와 세속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에 의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²¹⁾ 아

19) 이은선, op. cit., pp. 60-61.

20) 유스토 L. 곤잘레스, op. cit., p. 92.

21) 루터, 「루터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담의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분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나라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비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세속법과 같이 다스린다. 루터는 이 세상에는 비그리스도인이 악과 함께 하며 그 수가 많아서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속정부를 제정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독교세계와 하나님 나라 바깥에 다른 정부를 마련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칼에 복종토록 함으로써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여도 행할 수 없게 하고 만약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움 없이 또는 평온하고 변성하는 가운데 악을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²²⁾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혼돈으로 변할까 염려하여, 두 정부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두왕국이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하며, 두 왕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선한자들 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두 왕국은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하며 둘 모두가 존속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건을 낳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외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악행을 막기 위하여 다른 쪽이 없다면 어느 한 쪽만으로는 세상에서 불충분하다.”²³⁾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속정부는 필요치 않으나²⁴⁾, 다만 비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누리며, 보호받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 세속정부는 의미가 있고 이런 목적으로 세운 세속정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는 소극적인 목적으로 세속정부를 인정했다면, 칼빈은 이상승

1999), p. 438.

22) Ibid., p. 443.

23) Ibid., p. 444.

24) 루터는 마태복음 5:39절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세속의 칼이나 법이 필요없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배와 바른 예배의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목적까지 가지고 있음에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칼과 세속법이 필요 없으므로 자신을 위하여서는 세상의 통치에 참여치 말아야 하지만, 이웃을 위하여서는 참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루터는 세속권세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 에 대한 답을 한다. 세속권세의 범위를 한정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속 권세가 영혼의 범을²⁵⁾ 규정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들에 대해 권세를 가지신다. 둘째, 세속권세는 악한 자들의 행위들을 주관한다.²⁶⁾ 세속군주들은 땅과 백성을 외적으로 통치한다.²⁷⁾ 셋째, 세속권세자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의 일을 명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순종해야만 한다. 넷째, 세속정부는 이단들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은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 일이다.²⁸⁾ 세속정부에 이렇게 네가지 한계가 지켜지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여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루터는 보았다. 루터는 사탄이 두 왕국을 쉬지 않고 혼합하는 것이 교회를 부패케 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루터는 중세 카톨릭주의와 제세레파라는 두 반대 이론에²⁹⁾ 대항하여 그 자신의 두 왕국 사상을 정립시켰다. “하나님께서서 두 정부, 곧 영적인 정부와 세속적인 정부를 세우셨고, 이 두 왕국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나가신다고 하였다.”³⁰⁾ 루터는 두 왕국 사상을 통해 세속정부와 영적인 정부를 날카롭게 구별하여서 카톨릭 교회에 의한 세속 권력의 지배를 개

25) 이 점에 대해 루터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외의 그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한다. (Ibid., p. 458) 그리고 영혼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다. (Ibid., p. 459) 그러므로 세속정부가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Ibid., p. 460)

26) Ibid., p. 462.

27) 마태복음 22:21 “가이사란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8) Ibid., p. 465.

29) 이은선, 「개혁자들의 신학」, 요단출판사, (서울: 1994), p. 112. “카톨릭이 교황의 신정 정치의 방향으로 두 영역을 혼합시켰다면, 제세레파는 종교적 분리주의의 이름으로 두영역을 너무나 날카롭게 분리시켰다.”

30) 박해경, op. cit., p. 209.

혁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제세레과의 완전한 분리를 극복하였다. 그렇지만 세속정부와 교회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은 약한 것이 아니다.

2) 세속정치와 교회의 임무

영적인 정부와 세속정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영적인 정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세속적인 정부는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 13-14절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악을 대항하고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다. 세속정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칼과 세속의 법으로 악한 자를 처벌하고, 올바른 자의 평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후는 땅과 백성의 평화와 유익을 추구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영적인 정부는 영생과 구원에 봉사하고 세속적 정부는 그 목적에 간접적으로 봉사한다고 말한다. 영적인 정부는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세속적 정부는 검으로 다스려진다. 교회의 임무는 십계명 처음 세계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으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회는 영적인 다스림을 하는데 공적인 문제들만을 통치한다.³¹⁾ 그는 교황과 감독들은 세속정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했으며,³²⁾ 사제들과 감독들은 섬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루터는 1520년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카톨릭의 부패함을 유지했던 세가지 담³³⁾을 비판하며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담인 영적인 권능이 세속정부 위에 있다는 법령을 만들어 낸 담인데, 이 부패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의 비판하는 내용은 교황, 주교, 사제와 같은 “영적계급”과 군주, 직공, 농부와 같은 “세속적 계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했다.³⁴⁾ 동시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

31) 루터, op. cit., pp. 459-460. “교회는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다.”(De occultis non iudicat ecclesia)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32) 루터, Ibid., p. 461. “나의 무례한 군주들을 위해 교황과 감독들은 감독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야 한다.”

33) 첫째는, 세속권력에 의해 억압을 당하면 법령을 만들어 영적인 권능이 세속권력 위에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로마교도들을 성경에 의해 책망하려 하면, 교황외에는 아무도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셋째로, 로마교도들이 공의회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 교황외에는 아무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답변을 했다. (루터, 「루터선집 제9권」,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3, p. 141)

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음을 밝혔다. 성직자들은 직무만 다르고 그 외에는 크리스찬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³⁵⁾ 우위에 있지도 않는 것처럼 세속관원에 대해서도 동등함을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분을 가지었음을 강조하면서, 카톨릭의 첫 번째 담을 허물었다. 세속정부와 교회의 관계에서 세속정부는 교회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교회는 세속정부의 영역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세속정부는 교황이나 사제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벌을 가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분임을 뜻한다.³⁶⁾ 이런 관점으로 당시의 부각된 문제에 대해 세속정부가 당국자나 일반 공의회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했다.³⁷⁾ 반면에 세속적인 문제는 교황의 법정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³⁸⁾

3) 세속정부에 대한 복종³⁹⁾

그리스도인이 세속권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루터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법이나 세속의 칼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⁴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며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악을 견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⁴¹⁾ 그리스도께서도 칼을 인정하셨지만,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만일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정부에서 꼭 필요로 할 때는 세속정부에서 일할 수 있음을 말했다.

34) Ibid., p. 142.

35) Ibid., p. 145.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자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 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머리되심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함을 주장했다.

36) Ibid., p. 146.

37) 루터에 따르면, 교황이 제약을 어기었으므로 첫 수입세를 폐지할 것과 로마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과 개교회의 권리를 회복케 하라고 제안한다.(cf. “1520년 독일 귀족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글”에서)

38) Ibid., p. 174. “세속적인 문제는 로마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속권에 맡기도록 규정해야 한다.”

39) 루터는 십계명 제5계명에서 세속정부에 대해 복종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40)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복수하거나 법에 호소하거나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놓고 소송을 거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명 아래 이방인들의 가장무도회를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루터, 「루터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 454)

41) Ibid., p. 445.

루터는 “독일 귀족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글”(1520)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정부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임무에 대해 말한다. 영적인 권세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항거하여야 하지만, 세속의 권세는 부정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항거하기를 금한다. 사람은 세속적인 정부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 세속적인 정부는 옳은 일을 행하거나 그른 일을 행하거나 영혼을 손상시킬 수 없고, 손상시키는 것은 다만 육체와 재산 뿐이다. 그러므로 세속정부가 부정을 행할찌라도 하나님은 신자들이 세속정부에게 여전히 복종하기 바라신다.⁴²⁾ 그 이유는 세속정부는 나의 신앙과는 무관하기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불복종하거나 항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⁴³⁾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세속권세자를 벌하신다.⁴⁴⁾ 또한 악인들에게 저항해서는 안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으며, 불의에 대해 인내로 참아야 할 것을 말했다. 이 점이 루터가 가지는 복종의 자세이다.

그러나 루터는 세속권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게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그 계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때, 복종이 종결되고 의무는 폐기되어 버림을 말했다.⁴⁵⁾ 제후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백성은 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모를 때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복종할 수 있다.⁴⁶⁾ 루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함을 이렇게 말했다.

“어떤 군주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따르거나 도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죽이지 말고 그에게 부정을 행치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그가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⁴⁷⁾

42) op. cit., p. 106.

43) Ibid., p. 107.

44)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시편107:40

45) Ibid., p. 114.

46) op. cit., p. 476.

47) op. cit., p. 114.

제후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그의 백성들은 옳은 것을 따르며 하나님을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의 계명(십계명)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듯하다.

루터는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1523)에서 그리스도인 제후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루터가 생각한 그리스도인 제후의 전쟁에 대해 취할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후는 자신의 상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여서는 안되고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에 무력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써 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⁸⁾

위의 말에서 그리스도인 제후는 상관에 대해 저항이 불가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 후 루터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백성의 결정으로 비준된 폭군시해라는 권한까지 후에 인정하였고, 신적영광의 구조와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보호를 위해서 외부 영주의 내정간섭이란 그에게 예배라고 하였다.⁴⁹⁾

다른 한편, 대적이 만일 동료, 부하 혹은 외국의 정부라면 평화를 제안한 후,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력에 대항하여 무력으로 방어하라고 한다.⁵⁰⁾

루터는 황제가 교황에게 저항하려고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터어키인이 기독교권을 위협하였을 때, 루터는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⁵¹⁾ 루터는 상황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황제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루터는 독재자들에 대한 반란이나, 능동적인 저항을 인정하는데 신중했는데 그 이유는 독재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폐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그의

48) 루터, 「루터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475 (cf.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1523))

49)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32.

50) Loc., cit.

51) 유스토 L. 곤잘레스 op. cit., p. 62. “법률 아래 있고,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는 상황과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터어키인들이 기독교권을 위협하였을 때, 루터는 자기의 추종자에게 무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장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였다.

정리하자면, 루터는 국가의 기원과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에 있음을 확고히 했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성격으로 긴장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았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세속정치와 교회가 독립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세속정부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명하게 밝혔다. 세속정부는 이 땅에 관한 일을 명하고 벌할 수 있으며,⁵²⁾ 교회는 영혼의 문제와 구원에 대하여 봉사한다. 루터는 세속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⁵³⁾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있는 한에서 세속관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했다. 세속권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칼빈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속관원의 직임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루터에게는 적은 것은 그가 시대의 현실을 어둡게 보고 있으며⁵⁴⁾, 세속정부와 교회 사이를 너무 분리하여 생각하는 그의 두 왕국 사상의 치우침 때문이라고 하겠다. 루터의 한계점은 교회와

52) 이런 입장에서 성도들은 칼을 휘둘렀음을 말한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네 명의 왕과 전쟁했던 일(창14:15), 사무엘은 아각왕을 베었고,(사무엘상 15:33),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베었다.(열왕기상 18:40) 이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왕과 군주들이 그렇게 했다. (루터, op. cit., p. 449)

53) 루터, Ibid., p. 469. “기꺼이 그리스도인 제후들과 군주들이고자 하며 내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cf. 만일 그리스도인이 제후가 되려고 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 루터는 세속의 제후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늘에 다다르게 되는가를 서술해 간다. 첫째,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둘째, 자신과 함께 하는 참모나 관원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신임하지도 말아야 한다. 셋째,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넷째, 온전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기도로서 구해야 한다. Ibid., pp. 471-479)

54) “당신은 세상의 시초부터 현명한 제후는 사실 드물며 경건한 제후는 더더욱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터, Ibid., p. 464)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많은 현명하고 경건한 제후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 “제후가 현명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큰 이적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땅 위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징표들 가운데 하나이다.”(Loc., cit) 루터도 칼빈과 마찬가지로 세속권세자의 임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아담이후 역사에 경건한 제후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들은 보통 이 땅에서 가장 바보들이거나 가장 악한 깡패들이다.”(Loc., cit) cf. 칼빈은 악한 세속권세자에게도 역시 공경과 순종을 백성의 의무로 보았는데,(Inst. 4. 20. 22-29) 루터에게는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과격함이 있다.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는 것이다.⁵⁵⁾ 그에게서 교회와 국가 간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찾기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정부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는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함을 말했다. 루터는 기독교관원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 두왕국 사상과의 일관성이 불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루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입장은 그의 두왕국론 사상과는 충돌되는 면이 있다. 아마 그 시대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그대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 관원인 경우에 두 왕국 사이에 세속정부가 영적인 정부를 공격해 올 때는 무력 사용이 가능하며, 신하가 군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식의 무력 대응이 가능하며, 동료나 외국정부의 공격에도 무력저항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런 경우라도 교회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법한 관원들이 도와줄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b. 쾰빙글리

그는 세속정치가들의 의무는 복음을 지키고, 종교를 보호하고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⁶⁾ 그는 세속정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적절히 실행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새롭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이다. 관원도 목사들 못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우상숭배를 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임명된 자라고 생각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지 않을 때에 시민들이 항거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관원들의 독재를 막기 위해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의지에 의해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제들은 관리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츠빙글리는 믿었다.”⁵⁷⁾ 즉 공권에의 저항이 바로 하나님께 저항이라는 엄밀한

55) 이은선, *op. cit.*, p. 52. “루터는 두 왕국 사상에서 교회와 국가가 구별된다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양자의 상호 긍정적인 연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56) Philip Sahaff, *op. cit.*, p. 66.

57) 이은선, *op. cit.*, p. 161.

원리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⁵⁸⁾

쯔빙글리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세속적인 관리들 양자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될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보았다. 세속정치에 속하는 영역과 영적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하나로 보기를 좋아했으며, 성경의 권위에 의해, 성경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 전체를 개혁을 추구했다.⁵⁹⁾ 그는 구약과 함께 신약에 근거하여 그의 정치론을 세웠고 사회를 크게 추구하는 마음에 경건이 있었다.⁶⁰⁾ 그리하여 그에게 애국자요, 좋은 시민과, 좋은 기독교인은 하나요 같다고 생각했다. 쯔빙글리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다른 스위스 자치주에까지 퍼뜨렸다. 그는 고소하고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세속 법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쯔빙글리의 설교와 개혁활동은 쥘리히의 일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⁶¹⁾ 그의 정치적인 활동은 위원회 안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편지들을 작성했다.⁶²⁾ 그리하여 1522년 시당국은 쯔빙글리의 제안으로 젊은이들은 용병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고, 쥘리히 시에서 당국의 개입 하에 성상을 제거하였다. 그는 금, 은, 보석 및 화려한 것을 착용하지 않게 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팔도록 하였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금하고, 술집, 연극 등을 없이하고, 간음과 매음을 금하였다.⁶³⁾ 그러나 쯔빙글리의 구체적 제안들이 채택되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채택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목회자와 관원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종들이라 하였

58)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33.

59) Philip Sa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10), pp. 65-66. "It was brought about by the co-operation of the secular and spiritual powers. Zwingli aimed at a reformation of the whole religious, political, and social life of the people, on the basic and by the power of the scriptures."

60) 김영규, op. cit., p. 34.

61) 울리히 개블러, 「쯔빙글리」, 박종숙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p. 110.

62) Ibid., p. 168.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에는 쯔빙글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목사도 없었다. 그는 13건의 안건들에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단지 3명의 의원들만이 이러한 제안들의 작성에 쯔빙글리보다 좀 더 빈번히 참여했다. 이렇게 하여 쯔빙글리는 정치가들 중에서도조차 탁월한 존재였다."

63) 김영재, op. cit., pp. 412-413.

다. 따라서 둘 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다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의 병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결여에서 나왔다는 견해에 있어서 말씀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다.⁶⁴⁾

그는 1529년 카톨릭측을 공격하기 위해 카텔로 진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는 사회개혁에 힘쓰는 등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마침내는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다.⁶⁵⁾

루터와 쾰링의 견해를 정리하자면, 루터는 두 왕국론을 주장하면서, 교회와 세속정부와는 구별을 통해 당시 세속정부가 교회를 침범하는 불법을 근절시키고자 하였고, 교회가 세속정부를 장악하려는 카톨릭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구별로 인해 세속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는 병립적인 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루터주의의 교회는 관원과 직접 그리고 거의 충돌이 없다. 그 후 관원정치와 주교정치를 인정하였고 많은 의식들을 사소한 것(adiapora)⁶⁶⁾으로 인정하였으며, 권징은 시의회에 일임되고 교회의 전정치는 관원에게 맡겨졌다. 루터는 모든 시민적 형벌을 교회의 권징에서 제외시켰지만, 루터주의 교회에서는 장로직책의 결여와 다만 목사에 의한 교회권징의 행사가 그것을 무효화하였고, 혼합적인 시의회에 일임되어 버리는 그런 오용으로 가버렸다. 김영규 교수는 루터주의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천적으로 쾰링, 에라스투스, 항론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교회가 권징수행의 권세를 관원에 넘겼던 많은 신신학자들의 가르침과 같은 결과를 주었다.”⁶⁷⁾

쾰링은 초기부터 개혁의 종교적인 면과 사회적, 정치적인 면을 합일하여서 그의 경건이 삶으로 충분히 넘치게 나왔으나, 세속정치에 치중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한 점은 그의 지나침이었다. 국가 정치에 있어서도

64) 김영규, *op. cit.*, p. 34.

65) 김영재, *op. cit.*, p. 416.

66) 루터주의는 성경에 없는 것은 adiapora로서 할 수 있다는 쪽이고, 칼빈은 성경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그의 적정과 절도의 규범에 있다.

67)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대신학대학원 강의안, 2000). p. 27.

구약을 그대로 신약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의 지나친 열정이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루터와 쾰링의 개혁하는 내용으로 그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많으나, 그들의 세속정부와 영적인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한 부분은 교회역사에 상처로 계속 남게 된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교회의 권리를 위해서 제네바에서 20년간 싸웠다. 권징은 교회의 신경이어서, 교회권징의 의무성, 필연성과 유익성에 대한 이런 관점이 개혁주의의 소유가 되었고, 로마카톨릭과 루터교회와 구별되었으며, 다른 한편 제세레파도 구별된 점이다.⁶⁸⁾ 칼빈은 세속정치와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B.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먼저, 국가통치에 대해 논하면서, 자신이 앞에서 말했던 기독교강요 4권 19장까지의 내용인 영적인 신앙론과 세속정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⁶⁹⁾ 이 둘이 꼭 연결되어야 할 필연성을 기록하고 있다.⁷⁰⁾ 그 이유는 세속정치를 전복시키려는 세력과 관원들에게 아첨하려고 하나님의 지배에 대립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억제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도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신앙론과 세속정치와의 관계를 연결하고 난 뒤, 앞에서 다루었던 양심의 심판⁷¹⁾과 외면적인 심판이 서로 다른 것

68) Loc., cit.

69) Inst. 4. 20. 1: "For although this topic seems by nature alien to the spiritual doctrine of faith which I have undertaken to discuss, what follows will show that I am right in joining them, in fact, that necessity compels me to do"

70)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II, brunsigae, 1864. p. 1092: Etsi enim a spirituali fidei doctrina, quam tractandam suscepi, separata esse videtur huius argumenti ratio, progressus tamen ostendet, merito a me coniungi, imo necessitate me impelli ut id faciam.

71) Inst. 4. 10. 5: "For our consciences do not have to do with men but with God alone. This is the purport of that common distinction between the earthly forum and the forum of conscien" 칼빈은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가지게

임을 지적하고 있다.⁷²⁾ 인간에게는 각기 별개의 왕과 별개의 법의 지배를 받는 두 세계가 있다.⁷³⁾ 보통 “영적인” 지배권과 “현세적인” 통치권 이라고 부른다. 그 지배권의 구별을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연결짓고 있으면서, 구별하는 이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⁷⁴⁾ 이런 관점은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칼빈의 논점이다.

이제, 먼저 세속정치와의 교회의 독립성을 밝히고, 그 후에 세속정치와 교회와 상호연관성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1. 세속정치와의 교회의 독립성⁷⁵⁾

칼빈의 신학은 그 시대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는 영적인 권세와 세속정부의 권세가 뒤엉켜 섞여 있고, 혼란했을 때,⁷⁶⁾ 영적인 권세와 세속정부의 권세를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구별하였으며,⁷⁷⁾ 그런 구별을 강조하였다.⁷⁸⁾

되는 의식이라고 하며, 그렇기에 양심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과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고 말한다.

72) Inst. 4. 20. 1: "before we enter into the matter itself, we must keep in mind that distinction which we previously laid down"

73) Inst(1536). 6. A. 13.

74) Inst. 4. 20. 2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 "the two government are not antithetic" 두가지 통치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제목이다. (Inst. 4. 20. 2)

75) 김영규교수는 역사적 정통개혁신학의 바른 노선의 요점을 6가지로 제시한다. 1)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2) 언약의 통일성 3)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finita non recipiunt infinita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a) 4) 장로교 정치 원리는 성직자 개인(uni)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자체에(unitas)있다. 5) 세속정치와의 교회의 독립성 6) 주일예배와 예배의식들. 이상의 여섯가지이다. 이 요점에서 5번째가 우리 논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바른 노선이다. 논자는 이 후부터는 칼빈에게 있는 세속정치와의 교회의 독립성을 찾아서 정리할 것이다. (cf. 김영규, 「17c 개혁신학」, pp. 17-45.)

76) 이 두가지 권세가 독립되지 않으면 칼빈시대의 독일의 베른 성직자와 같이 중노릇할 수도 있는데, 제네바교회와 함께 독일의 베른의 교회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칼빈은 자주 호소했고,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역시 호소했다. (Philip Sahaff, op. cit., p. 472)

77) Philip Sahaff, ibid., p. 471: "In theory, Calvin made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the spiritual and secular powers than was usual in his ages, when both were inextricably interwoven and confused."

78) 이은선, op. cit., p. 97. "칼빈은 영적인 통치와 세속통치가 서로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칼빈의 신학에서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 신학의 전제해야 할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후로는 이 점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좋겠다.

a. 칼빈신학의 전제해야 할 원리79)

1)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시민정체의 구별

칼빈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spirituale Christi regnum*)과 시민정체(*civilis regimen, civilis ordinario, regnum politica*) 사이를 구별하였다.⁸⁰⁾ “이 구별은 단순히 질서와 법의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 속한 것들은 크게 구별된 것(*res esse plurimum sepositas*)이라는 것이다.”⁸¹⁾ 칼빈의 설교에서도 여전히 지상의 왕들과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다.⁸²⁾ 그리하여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분은 시민정체와 구별되므로, 교회 안에서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관원에 대한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시민정체 사이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유대인처럼 세속정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의 지식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⁸³⁾ 다만, 우리의 주된 관심인 세속정치(*politica*)는⁸⁴⁾ 시민정체 안에 들어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 지금 세속정치에 대해 다루는 것은 어떤 영원한 목적에 이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⁸⁵⁾ 포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⁸⁶⁾

79)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신대원 강의안.(2000), p. 37-38.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하나(1998). p. 34-39.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했다.

80) 이 구별이 국가와 교회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81) 김영규, *Ibid.*, p. 37. (John Calvin, *Institutio* 1536, IV, 259. 재인용)

82) 존 칼빈, 「예레미야 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 23.

83) *Inst*(1536). 6. C. 35.

84) 빌헬름 니이젤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85) cf.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2002. 11. 12.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강의 녹취자료: “여기서 다른 세속적 정치는 대표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원리면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는 같은 원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가 주어야 할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인데, 관원은 하나님

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결하여 기독교강요를⁸⁷⁾ 시작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된 신앙이며, 복된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목적도 온 인류가 그를 아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하나님의 매 사역들에서 특별히 그들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들이 그림에 묘사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를 아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참되고 완전한 행복으로 초대되고 유인되고 있다.(... Dei vitutes, quibus in eius agnitionem, et ab ipsa in veram plenamque foelicitatem invitatur atque illicitur universum hominum genus)”⁸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⁸⁹⁾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

이 주어진 권세로 주어진 도구이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원리와 성격이 전혀 다른 기초를 두고 있기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시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고,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신론적인 이해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전혀 다른 기원과 기초라든지, 여전히 관원에 대한 태도를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안에 가족과의 관계가 있다.”

86) 김영규, op. cit., p. 38. “윤리적 혹은 정치적 질서의 씨로서의 인간이성 혹은 이성의 빛이나 그로 인한 인간 활동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어떤 영원한 목적에 이바지 하는 성격에서 포용적이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36. “이런 전제의 설명이 곧 우리가 ‘정치’를 논할 때 어떤 자로서 논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정의나 의의 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칼빈의 기본입장을 그 정체사이의 분리는 아니지만, 모든 질서와 원리에 있어서 그들 사이를 혼돈하거나 혼합하지 않는 데 중심이 있다.”

87) 기독교강요 1권 1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들의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둘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Inst. 1. 1)

88)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 I」,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Inst. 1. 5. 10 재인용)

89) Inst. 1. 18. 1.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취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조하셨으며 섭리하신다. 이런 모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복된 삶을 살도록 초대되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⁹⁰⁾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안에서 구속받은 것도 은혜의 수단이다. 죄와 죽음과 지옥까지도 수단인 것이다.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칼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허용이나 예지의 개념으로 회피하지 않는다. 짧게 말해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들의 원인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그의 은밀히 정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칼빈은 욥기1장을 예로 들어 말한다.

“실로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으면 사탄은 어떤 일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거룩한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 공공연하게 첨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의 원작자는 하나님이며 사탄과 사악한 도둑들은 다만 그 대행자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욥1:21)라는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이다.”⁹¹⁾

사단은 욥을 해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스바사람은 소유를 빼기 위해 약탈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속에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은 그 열쇠를 잡고 계시며 저들의 수고를 돌려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⁹²⁾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단도 행하고, 사람도 행하고 하나님도 행하시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다른 목적에서 행하는 것이다.⁹³⁾ 사탄은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넘어 뜨리기 위해 시험한다.

90) cf.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피택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정하셨듯이 그의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이 영광에 이르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미리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담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고 자연스러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을 모두 정하셨다. 그것은 택함을 받은 그들이 아담안에서 타락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화되는 것이다.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을 위해서 수단들을 정하셨다. 아담안에서 타락과 인간의 죽음과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을 수단으로 본다.

91) Inst. 1. 18. 1.

92) Inst. 1. 18. 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증명하고 연단하기 위해 시험하신다.⁹⁴⁾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자의 행동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계획과 의사까지도 다스린다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범죄의 창시자이시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수행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⁹⁵⁾ 이에 대해 칼빈은 대답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교훈이 잘못 혼동되어 있는데, 이 양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는 수없이 많은 예증들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⁹⁶⁾

하나님의 의지는 선한 것을 향하고, 바라고 계시는데, 악인이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있는 것이다.⁹⁷⁾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교회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부패를 거절하는 원인이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오는 섭리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의 폭군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⁹⁸⁾

우리 인간의 무능력에 의해 그가 어떻게 다양하게 뜻하고 계시며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섭리가 다양하게 보인다고 하였다.⁹⁹⁾ 만일 이것이 조잡하다고 생각하

93) 김영규, op. cit., p. 37. “3중 행위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성경의 여러 증거들과 특별히 욥기서의 근거에 의해서 인간도 친히 행하고 동시에(simul) 하나님도 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다른 목적에서 행할 뿐이라고 하였다.”

94) Inst(1536). 3. B. 27.

95) Inst. 1. 18. 4.

96) Inst. 1. 18. 4.

97) cf. 칼빈이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으나 두 나라로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열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이다. 칼빈은 이런 예증 외에도 몇가지를 더 들고 있다.(Inst. 1. 18. 4)

98) 김영규, Ibid., p. 38.

99)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38: Institutio

는 사람이 있다면 칼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이것이 조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한다고 해서 성경이 명백히 입증하는 진리를 거절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완고함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⁰⁰⁾

계속해서 오만하게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떠들고 있는 것이므로 칼빈은 이런 사람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그 후에는 반박해야 할 가치를 두지 않는다.

3) 저항방식으로서 오직 성경

칼빈은 “오직성경(sola scriptura)”아래 어거스틴주의와 그를 따르는 종교개혁 정신의 정수에 해당된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규범(ex scripturis et cogitandi et loquendi regula)” 으로부터¹⁰¹⁾ 그의 주석들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 강요의 후대 재판들에서 그렇게 확고해지고 있으며, 이런 규범이 계속 정당하게 입증되고 있다.¹⁰²⁾ 조직신학의 모든 핵심교리들에 대해서 이런 규범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였던 것처럼, 모든 조직신학의 내용은 오직 성경¹⁰³⁾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규 교수는 칼빈의 조직신학에 있어 오직성경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조직신학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성경안에서, 성경과 더불어, 그리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여야 하되, 지나친 호기심¹⁰⁴⁾(nimia

I, x viii, 3: Neque tamen ideo vel seum pugnat, vel mutatur Dei voluntas, vel quod vult se nolle simulat: sed quum una et simplex in ipso sit nobis multiplex apparet: quia pro mentis nostrae imbecillitate, quomodo idem diverso modo nolit fieri et velit non capimus”를 재인용.

100) Inst. 1. 18. 4.

10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1(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0), p. 48.

102) Ibid., pp. 44-45.

103) 칼빈은 오직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례를 성례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한다.”, “명령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역자의 제1수칙이다. (Inst(1536). 5. A. 2)

104) 칼빈의 호기심의 거절에 대해 성례의 제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례에 관한

curiositas)으로 공허한 (superbacia, vana, inania, frivola, inutilis)사색을 하거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지나가는 것(silendo tranmittenda)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¹⁰⁵⁾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판명하기 때문에(locus ipse per se satis clarus est), 성경의 해석이나 탐구의 길을 성경 밖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지 말고(nequae alibi quam in verbo quaerenda, nec... aut investigare nisi in sacro eius verbo), 성경에서 설명하는 지식 이외에 다른 지식을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말고(aliam ... notitiam appetere quam quae verbo Dei explicatur, non minoris esse insaniae, nec aliunde sciscitare quam ex eius verbo), 오직 말씀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말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탐구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멀리 보도록 앞서 비춰 주는 빛이니(verbum Domini unicam esse viam quae ad investigandum ... nos deducat, unicum esse lumen quod ad perspicendum ... nobis praeleat), 그 말씀안에 지적인 활동의 확실한 규범을 갖는다.(redire ad verbum Domini, in quo habemus certam intelligentiae regulam”¹⁰⁶⁾

성경자체로 충분하고 판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부패와 악의 힘의 강대함 때문에¹⁰⁷⁾, 모든 일에 있어서 호기심을 거절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기본신앙이다.¹⁰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될 때의 결과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알

앞의 논의는, 가르침을 잘 받고 건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호기심을 품지 않게 하고, 또 주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 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성례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p) (Inst(1536). 5, 서론, 1, p. 246).

105) 김영규, op. cit., p. 47.

106) Ibid., pp. 48-49. (Institutio 1539, VIII, 245; IV, p. 212 재인용)

107) Inst(1536). 6. B. 21. “신자들은 그 외의 사람들 보다 더욱 월등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롬 8:23) 조금 맛본 정도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 힘써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책이다. 만약 그들이 내키는데로 두루 헤맨다면, 정도에서 벗어나 탈선하게 되는 것이다.”

108) 김영규, op. cit., pp. 38-39.

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일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¹⁰⁹⁾

특히 목회자는 말씀의 사역자인데, 그들이 자신의 직무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대로 움직인다면, 그들은 단지 멍청이가 될 뿐이며, 그들을 무조건 목회자로 존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함을 말했다.¹¹⁰⁾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의 사상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앞서 말한 그의 사상은 그가 오직 성경만으로 저항방식을 삼은 이유이다. 그는 오직 성경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전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했고, 그 교리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말씀 밖에 어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그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만족스럽고 공홀로 주워진 피조물들 가운데 그 모든 재화들로부터 저를 확신하고 있다.”¹¹¹⁾

칼빈의 신학의 이런 전제는 그의 신학을 함에 있어 토대가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칼빈의 이런 전제 안에서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세속정부에 대해서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관원과 법과 국민 이라는 세 부분¹¹²⁾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독교 강요 4권 20장 4절부터 32절까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속정치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 먼저 집권자의 지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소명인가 그리고 그 지위의 성격과 그 권한의 범위는 어떠한가를

109) Inst(1536). 6. B. 21.

110) Inst(1536). 6. B. 24.

111) 김영규, *op. cit.*, p. 42.

112) 칼빈은 세속정치에 있는 세 부분을 관원(magistratus)과 법(leges)과 국민(populus)이 있음을 말했다. 관원에 대해서는 4절-13절에, 법에 대해서는 14절-21에, 국민에 대해서는 22-32에 설명해 나가고 있다. (cf.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Bakerbook, p. 212-214. 여기에 보면 세속권세와 교회권세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3개의 표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찰하겠다. 다음에 기독교적 정부¹¹³⁾는 어떤 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그 법은 국민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국민은 집권자에게 복종할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고찰하겠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4권 20장을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기독교강요를 읽어야 하겠다. 이제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b. 세속정치와 교회의 권위

세속정치와 교회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세속정치와 교회가 각각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았으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세속정치에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관원이며, 영적인 통치의 권위를 받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인데, 이제 관원과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며, 그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세속정치의 권위(관원의 권위)

칼빈은 관원¹¹⁴⁾들이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 이를 테면 대리자로서 행동한다고 했다.¹¹⁵⁾(Ea enim

113) 칼빈이 기독교적 정부라고 할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 시민 권세에 대한 거짓된 세력에 대해 언급할때, 3가지 잘못된 형태를 비판한다. 첫째, 시민정부의 편을 드는 교회의 모습(Inst. 4. 20. 1), 둘째, 교회에 의존하여 시민으로부터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자(Inst. 4. 20. 1), 셋째, 모세시대의 율법을 기초로하는 신정제도에 대해(Inst. 4. 20. 14; 16), 이 세 부류를 비판하고 있다.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적 정부는 이 세가지 정부형태는 부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대로 다스리는 정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칼빈이 제네바를 신정국이 되기를 바랬다는 의견은 틀린 것이며, 칼빈은 제네바를 기독교적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종교개혁을 실천했다.

114) 칼빈에 의하면, 관원의 영예로운 칭호를 “신(神)들(gods)” (출22:8; 시82:1,6; 요 10:35)로서 예를 들고 있다.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관원들을 예로 들고 있다.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같이 왕위에 있던 사람, 요셉과 다니엘처럼 고관이었으며,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과 같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신다고 표현한다.(Inst. 4. 20. 4)

115) Ibid.,: “For it signifies that they have a mandate from God, have been invested with divine authority, and are wholly God’s representatives in a

significatur, mandatum a Deo habere, divina autoritate praeditos esse ac omnino Dei personam sustinere, cuius vices quodammodo agunt.)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vocatio), 그 소명은 어느 소명보다 신성하고 영예롭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는 교회와 세속정부를 위한 법이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¹¹⁶⁾ 관원은 세속정치에서의 직임을 받은 자로서, 그 직임으로 교회를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원의 권위와 임무는 세속정치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¹¹⁷⁾

칼빈은 그의 십계명 5계명 주석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간결하게 대유법적 표현을 쓴 것이며, 여기서 부모라는 말속에 일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윗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¹¹⁸⁾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육신의 부친인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쓰기 때문에 존경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재판관들을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2:28절 주석에서 설명한다. 칼빈은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한다.¹¹⁹⁾ 베드로전서 2:13이하에 주석에 보면 하나님 주신 권위를 모든 왕과 공직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관원의 직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서 세워지는 것으로써, 국민은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와 사자(ministros ac legatos)로서 존경해야 한다.¹²⁰⁾ 국민은 다만 통치자가 무서워서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

manner, acting as his vicegerents.”

116) Philip Sahaff, op. cit., p. 472.

117) 빌헬름 니이젤에 따르면, 비상시에는 시장이 설교자의 직무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상적인 통치자를 순종케 하여 교회에서도 의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고 한다. (빌헬름 니이젤, op. cit., p. 229) 그러나 논자는 그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세속통치자가 교회의 영역을 넘어 온 것이므로, 비상시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118) 존 칼빈, 「성서주석(모세오경)2」, 편집부역, 성서원, 2001, p. 457.

119) Ibid., “칼빈은 로마서 13장 1,2절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20) Inst. 4. 20. 22.

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다. 통치자들을 존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칼빈은 그의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 신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관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다”¹²¹⁾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모든 계층의 관원¹²²⁾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인 모든 관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직임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 집권자들에게 항거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다.¹²³⁾ 칼빈은 개인으로서 세속정치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권자들의 직무를 침범하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일종의 복종으로 여기는 것을 칼빈의 말에서 보게 된다.

“나는 사사로운 시민이 공중 앞에서 지켜야 하는 자제심도 일종의 복종으로 인정한다. 개인으로서의 시민은 자기를 억제해서 공적인 일에 일부러 간섭하거나 공연히 집권자의 직무를 침범하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손을 댈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자기 손을 묶어 놓아야 한다. 자유로운 손을 가진 것은 집권자뿐이므로 문제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은 명령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배자가 명령할 때 사사로운 시민은 공적 권의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¹²⁴⁾

121) 존 칼빈, 「성서주석(베드로전서)」, (서울: 성서원, 2001), p. 399.

122) 칼빈의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석을 보면, 우리가 순복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대상을 폭 넓게 보고 있다. “사도는 온갖 계층의 관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순복하지 않아도 될 방백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같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말로써 이것을 확증한다.” (칼빈, Ibid., p. 401)

123) Inst. 4. 20. 23.

124) Inst. 4. 20. 23

이 문구에서 보듯이 개인으로서는 세속정부에 대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나, 공적직임을 받은 관원은 백성의 귀와 눈으로서 그들의 소리를 보고, 듣고 백성들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 따라 왕들과 관원들을 세우심을 말하고 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습에 따라 왕을 세우심을 지적한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단2:21,37) 마찬가지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단 4:17,14)¹²⁵⁾ 만일, 한 민족이 심판을 당한다면 그 이유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¹²⁶⁾ 악인이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¹²⁷⁾ 그 백성이 선한 인물에 다스려지기에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의 표시이다.¹²⁸⁾ 만일 선한 위정자를 주시는 것은 그가 그 백성에게 공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위정자를 준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공휼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표시라고 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포기할 때, 그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엄격함을 증거하신다고 설교했다. 한 나라의 왕과 관원을 세우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¹²⁹⁾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에게는 선한 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악한 왕을 허락하신다. 선한 히스기야 시대에 백성들이 은밀히 우상숭배 한 것을 보시고 악한 왕 므낫세를 세우셨다. 그 외에 느부갓네살왕(겔29:19,20; 단 2:37-38)이나 벨사살(단5:18-19)같은 악한 왕도¹³⁰⁾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성경은 증거한다.

125) Inst(1536). 6. C. 54.

126) 그 예로 유대나라의 므낫세 왕을 예로 들고 있다. 하나님이 유대나라를 벌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렘15:4) 때문이라고 밝힌다. 므낫세는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모든 미신에 빠졌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므낫세왕의 잘못과 함께 악에 빠진 백성들의 잘못이 있다. 므낫세가 그토록 오래 통치한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칼빈,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pp. 50-51.)

127) Inst. 4. 20. 25

128) 빌헬름 니이젤, op. cit., p. 237: 아무리 나쁜 정부도 이미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신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까닭에 그의 행동과 태도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예 있는 권세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129) 칼빈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본 논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라는 항을 보라.

한 나라의 왕과 세속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졌고,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하늘의 칙령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악독한 폭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임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공적복종에 관해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에게 드릴 그 공경과 존경을 악한 지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려야 한다.¹³¹⁾

2)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이제는 교회의 권위 역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과 교회의 대표자인 목회자의 권위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결국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교회¹³²⁾를 세우셨다. 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이다.¹³³⁾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은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수단도 첨가하셨다. 복음전파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셔서¹³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백성을

130) 칼빈은 다니엘 2장 18-20절 주석에서 모든 왕들은 우연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섬김받게 된다는 원리를 지적했다.(칼빈, 성경주석(다니엘),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327)

131) Inst. 4. 20. 25

132) 논자는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불가견적 교회(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보다는 가견적인 교회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Inst. 4. 1. 2) 그러나 칼빈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가견적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3) Inst. 4. 1. 4.

134) Inst. 4. 3. 4: “다음이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직책들이다. 나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고 믿는다. 교사들은 제자 훈련(charge of discipline, 제자훈련이라는 번역보다는 권징의 책임이란 번역이 좋을 듯 하다.) 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교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한다.”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으며”¹³⁵⁾ (Pastores instituit ac doctores (Eph. 4, 11), quorum ore suos doceret; eos autoritate instruxit)

그 외에도 장로들을 세워 도덕적인 문제들을 견책하고 지도하는 일을 맡겼으며, 빈민을 돌보고 구제물자를 분배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위임했다.¹³⁶⁾ 그리고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제정하셨다. 한 단체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¹³⁷⁾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¹³⁸⁾ 그러므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가 보이는 곳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있으며, 표지가 없는 곳에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만한 것이 전연 없다.”¹³⁹⁾

c. 세속정치와 교회의 임무

1) 세속정치의 임무

세속정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므로 그 임무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 임무는 너무나 중요하므로, 칼빈은 세속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세속정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활을 마련하고, 종교생활의 보조자로서의 임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

135) Inst. 4. 20. 4: “He instituted pastors and teachers(Ephesians 4:11) through whose lips he might teach his own; he furnished them with authority.

136) Inst. 4. 4. 1.

137) Inst. 4. 1. 9: “But we must think otherwise of the whole multitude itself. If it has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honors it, if it has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it deserves without doubt to be held and considered a church. For it is certain that such things are not without fruit. In this way we preserve for the universal church its unity, which devilish spirits have always tried to sunder; and we do not defraud of their authority those lawful assemblies which have been set up in accordance with local needs”

138) Inst. 4. 12. 1.

139) Inst. 4. 2. 5.

사회에 있어서 세속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 사회에서 세속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참으로 그 위치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 즉 사람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따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한다.”¹⁴⁰⁾

이렇게 칼빈은 세속통치자들의 임무를 높게 인정한다. 이제 다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반적인 면에서 국가의 임무로 보는 것이다. 앞 부분에서 교회는 세속정치에 대해 독립성을 가짐을 밝혔다. 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세속정부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종교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시인한다.”¹⁴¹⁾ (Siquidem nihilo hic magis quam antea leges de religione ae Dei cultu hominibus suo arbitrio ferre permitto, quum politicam ordinationem probo,)¹⁴²⁾

세속의 관원들은 그들이 받은 권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바쳐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위에 다스리게 해야 할 임무가 있다.¹⁴³⁾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고,¹⁴⁴⁾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것은

140) Inst. 4. 20. 3.

141) 존 칼빈, Inst. 4. 20. 3: “For, when I approve of a civil administration that aims to prevent the true religion which is contained in God’s law from being openly and with public sacrilege violated and defiled with impunity,”

142) Inst. 4. 20. 3.

143) Inst. 4. 20. 5: “다윗이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고 했을때,(시2:12) 그는 그들이 그 권위를 버리고 사생활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권력을 그리스도에게 바쳐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위에 군림하게 하라고 하였다.”

144) Inst. 1. 5. 1.

도덕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자리잡은 것이며, 그것은 말을 못하는 피조물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아무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¹⁴⁵⁾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섬겨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하는 자에게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벌을 줄 수 있다. 세속정치자들은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 사회를 다스리실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¹⁴⁶⁾ 하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를 일시적으로는 무시다가 앞으로 심판을 연기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시므로 불경자와 유기자들은 입을 다물게 된다.(시107:42)¹⁴⁷⁾ 불경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후심판 때에 불경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세속정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그들이 법(실정법)을 제정하며¹⁴⁸⁾ 재판소에서 공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한다.¹⁴⁹⁾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자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집행하신다고 한다.(롬13:3-4)

그리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중집회에서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충고한 다음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첨부한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로 교회의 상태를 세속정치의 보호와 돌봄에 맡기셨다.¹⁵⁰⁾ 그러므로 세속통

145) 로마서 1: 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146) Inst. 1. 5. 7.

147) Inst. 1. 5. 8.

148) 칼빈의 법 제정에 대한 이해는 본 논문의 “도덕법에 근거한 실정법의 제정과 집행에 대해”이라는 항을 보라.

149) Inst. 4. 20. 4.

150) Inst. 4. 20. 5: “By these words he entrusts the condition of the church to their protection and care.”

치자들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속통치자의 한계는 칼빈의 다음의 말로서 정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건에 대해서 법을 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은 앞서서나 여기서나 마찬가지이다.”¹⁵¹⁾

세속 정치가들은 도덕법에 준하여 여기는 자들을 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법을 제정하지는 못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으로 직접 명하신대로 한다.¹⁵²⁾

이 외에도 칼빈은 세속통치자의 임무 중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수행에 대한 합법성과¹⁵³⁾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¹⁵⁴⁾와 과세권에 대해¹⁵⁵⁾ 설명한다. 이렇게 세속정부는 백성들 사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세속정부의 임무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인간성이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¹⁵⁶⁾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의 자유를 세우며, 사람답게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세속정치의 임무라 할 수 있겠다. 세속정치가는 법의 제정에 있어서 우상숭배와 미신에 대해 벌을 주는 법까지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건의 일에 대해 법을 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세속정치와 교회의 연관성과 구별됨이 여기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151) Inst. 4. 20. 3.

152) 예배의식에서도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한다는 사상이다. 그리하여 시편 찬송을 부르며(엡5:19),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며 듣고, 축도를 하는 것이다.

153) Inst. 4. 20. 11.

154) Inst. 4. 20. 9.

155) Inst. 4. 20. 13.

156) Inst. 4. 20. 3: “In short, it provides that a public manifestation of religion may exist among Christians, and that humanity be maintained among men.”

2) 교회의 임무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으므로 그 임무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회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부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De externis mediis vel adminiculis quibus Deus in christi societatem nos invitat et in ea retinet).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진실한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와 같으므로 경건한 신자는 교회와 단일체를 유지해야만 한다.¹⁵⁷⁾고 하였다. (De vera ecclesia cum qua nobis colenda est unitas, quia piorum omnium mater est)

그가 기독교강요 3권까지 설명하였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분에 의해서 구원과 영원한 복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되었다는 내용이다.¹⁵⁸⁾ 그 이후 우리의 무지와 나태함으로 우리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보조물을 약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게 되고, 이 지상에서 천국에갈 때 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어머니와 같은 기관이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데,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임무를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세속정치와 교회는 그 근원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본성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나, 임무에 있어서나, 수단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구별이 되어 독립성을 유지한다.

157) Cf. Inst. 4. 20. 1: 4권 1장 의 제목이다. "The true church with which as mother of all the godly we must keep unity"

158) 존 칼빈, Ibid., "As explained in the previous book, it is by the faith in the gospel that Christ becomes ours and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salvation and eternal blessedness brought by him. Since, however, in our ignorance and sloth (to which I add fickleness of disposition) we need outward helps to beget and increase faith within us, and advance it to its goal, God has also added these aids that he may provide for our weakness. And in order that the preaching of the gospel might flourish, he deposited this treasure in the church."

2. 세속정치와 교회의 상호연관성¹⁵⁹⁾

이제까지 세속정치와 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했으니, 이제는 세속정치와 교회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칼빈은 양자간의 구별을 말했지만 둘 사이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먼저 세속정치와 교회의 서로에 대한 의무를 본 후에,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a. 세속정치와 교회의 의무¹⁶⁰⁾

1) 세속정치는 교회에 대하여 (관원의 임무와 자세)

세속정치는 교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관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원의 임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돌보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¹⁶¹⁾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이 점에 대해 설명한다.

“그 직책이 율법의 두 돌판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속학자의 글에서도 배울 수 있다. 집권자의 직책과 입법과 공공복지에 대해서 논한 사람은 반드시 종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159) 에밀 두메르그, 「칼빈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139: “칼빈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반대했었다는 것은 완전한 사실이다. 거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렇다. 즉 그 둘을 구분한다는 것과 그 둘이 협조와 상호이해를 배제하지 않는, 오히려 고무하는 상호적이고 자치적인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160) 신복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1973, p. 11. “칼빈의 주요관심사는, 국가문제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자유를 확립하는 일, 또는 보호하는 일이었다.”

161) 한철하, “칼빈의 정치론” 신학지남, 1962, p. 321. “칼빈에 있어서는 제네바 교회의 결정은 국가권력으로 어려움 없이 강권행사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부라 할 수 있었다.” p. 323.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의 문제는 곧 국가 안전의 문제였다. 종교적 분열은 즉시로 정치적 분열을 의미하였고, 또한 정권의 전복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종교문제가 곧 정치문제로 된 것은 이 시대의 특유한 사정에 속한다.” 이렇게 칼빈 시대의 독특한 분위기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철하 교수의 주장인 ‘제네바 교회의 결정은 곧 국가권력으로 어려움 없이 강권행사를 할 수 있었고’ 라는 주장보다는 경건한 의회원들이 제네바 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한 결정을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정당할 것이다.

부터 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건을 제일의 관심사로 삼지 않으면 원만하게 정부를 수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일만을 돌보는 법률은¹⁶²⁾ 본말을 전도한 것임을 모든 철학자가(omni philosophi) 인정했다.”¹⁶³⁾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관원과 비기독교관원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관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관원, 개혁주의 관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고 그의 교회를 보호하며 그 왕국을 적그리스도로부터 근절시키는 사명을 갖는다는 것”¹⁶⁴⁾이다. 이 일은 모든 민족의 관찰이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인 관원이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자기의 태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¹⁶⁵⁾ 비기독교관원¹⁶⁶⁾들에게도 기독교관원과 함께 공통적인 임무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바른 교리를 전하도록 보호해야 하며 국민을 돌보며 정의를 세워야 한다.¹⁶⁷⁾

칼빈은 왕을 비롯한 세속정부의 국가통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 통치에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¹⁶⁸⁾

162) Inst. 4. 20. 9; “Calvin has in mind not Machiavelli but Cicero, as in Laws 2. 2:7-9”, (LCL edition, pp. 388-415)

163) Inst. 4. 20. 9

164)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대신대원 강의안, 2000), p. 30.

165) Inst. 4. 20. 9.

166) A.A.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p. 388-389: “높은 의미로 볼때,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위정자나 그 밖의 것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담당하는 관계의 수가 많고 중요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

167) 빌헬름 니이젤, op. cit., p. 227.

168) Inst. 4. 20. 2.

칼빈이 이 말을 한 것은 재세례파와 같이 세속정치를 배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존재이므로, 재판소와 재판과 법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므로 다른 법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칼빈은 인간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성에 대한 미련한 공상을 한다고 비판하였다.¹⁶⁹⁾ 칼빈은 곧 이어 정부의 주요임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 그리고 그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간의 선한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¹⁷⁰⁾라고 말한다.¹⁷¹⁾

이 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세속정치는 종교의 공적인 형태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존속되게 하고, 인간애가 사람들 가운데 유지되도록 한다.¹⁷²⁾ 세속통치의 존재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의무와 함께 우상숭배나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나 불경의 죄를 억제시키는 적극적인 의무도 함께 말하고 있다. 앞서 말한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람사이에 윤리적, 도덕적 목적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저술하여 세속정치의 임무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왕에게 개혁교회들의 바른 정체성을 알리고자 하였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169) Inst. 4. 20. 2.

170) Inst. 4. 20. 3: “It does not, I repeat, look to this only, but also prevents idolatry, sacrilege against God’s name, blasphemies against his truth, and other public offenses against religion from arising and spreading among the people; it prevents the public peace from being disturbed; it provides that each man may keep his property safe and sound; that men may carry on blameless intercourse among themselves; that honesty and modesty be preserved among men. In short, it provides that a public manifestation of religion may exist among Christians, and that humanity be maintained among men.” (cf. Inst(1536). 6. C. 37)

171) 이에 대해 쾰빙글리 역시 같은 견해였으며, 쾰빙글리는 쾰리히에서, 칼빈은 쾰빙글리보다 더 풍성하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다. (Philip Sahaff, *ibid.*, p. 66)

172) Inst(1536). 6. C. 37)

세속정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탄원할 목적으로¹⁷³⁾ 기록하였다.

칼빈이 1548년 10월 22일 영국의 귀족 소머셋(somerset)에게 보낸 편지¹⁷⁴⁾를 보면 개신교 공직자로서 의무를 권면하고 있다. 그가 높은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자로 짊어져야 하는 의무들을 확인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다.(Dutis imposed on the protector by the high office whice he holds?) 그는 기독교귀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국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를 전하고 있다.

세속정치는 교회에 대한 임무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호해 주며,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데 협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과 우상숭배를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2) 교회가 세속정치에 대하여 (목회자의 임무와 자세)¹⁷⁵⁾

세속정치의 교회에 대한 임무는 살펴보았으니, 이제 교회가 세속정치에 대한 임무가 어떠한을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직책(ad docendi munus)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설교할 임무가 있다. 세속통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불의하고 부당하게 하여도, 그들에 대해 배격하거나 도전해서는 안되고 세속정치를 인정해야 하는 소극적 임무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속정치를 세우셨기 때문에 만일 세속정부를 배격하는 것은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행동이다. 칼빈이 1560년 9월 6일에 제네바에서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를 보아 기독교인이 세속정치와 관계에 있어 어떤 자

173) 포드 루이스 베틀즈는 프란시스 1세에 대한 헌사와 1536년 기독교강요의 최종장을 비교해 보아 6장이 왕에 대한 탄원의 사실상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Bakerbook, p.110)

174) 칼빈의 저작은 기독교강요가 대표적이며, 그의 주석과 설교가 있다. 이런 책들은 그의 신학과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살피는데 탁월하게 좋다. 그의 다른 글들 중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펼치며 세속정치가들에게 보낸 서신이나, 의회에 보낸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의 세속정치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75) 김명혁교수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타협이나 복종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비판과 감화를 통한 갱신과 변혁이라고 규정했다. 갱신과 변혁이 제한적이고 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명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혁, op. cit., p. 87)

세를 가지어야 하는지 보여 준다.¹⁷⁶⁾ 칼빈은 자신의 제자 불링거에게 기독교인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인 탄압이 올 때 조차도 폭동은 금지되는 것을 알게 된다. 교회는 세속정치에 개입하여 그 일을 떠맡는 것이 부당함에 대해 칼빈은 카톨릭 주교를 비판하고 있다.

“사법적 절차 및 도시와 지방의 행정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일과는 동떨어진 활동을 떠맡는 것이 주교의 임무인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주교이면서 동시에 좋은 군주가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만약 사도들까지도 임무에 파묻히는 일이 없고는, 말씀 사역과 재정 출납일을 한꺼번에 떠맡을 수 없다고(행 6:2) 실토했다면, 하물며 사도들과는 전혀 비교도 안되는 소인배들이 어떻게 100배도 넘는 사도들의 부지런함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¹⁷⁷⁾

목회자는 세속의 권력자의 자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임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훌륭한 인격과 삶으로 세속정치에 큰 영향을 끼쳐야 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주석을 영주인 제임스 각하의 이름으로 헌사를 쓰고, 출판한다. 제임스 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분이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가 황제 앞에서 불신자들의 모함을 받은 것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것을 존경하고 있다.

“황제 앞에서 당신을 모함하는 불신자들의 모함을 당신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며, 또한 지금 고국에서 추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모든 면으로 보아 당신의 현재 입장을 자랑스러워하

176) 존 칼빈,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Vol 5, Letters, Part 2 1559-1564』, David Consta, (Albany: Ages Software, 1998); “The object of our efforts is to prevent our coreligionists from stirring up tumults.”(우리가 노력하는 목적은 폭동을 선동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을 막기 위해서이다.)

177) Inst(1536). 6. B. 29.

고 예전처럼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¹⁷⁸⁾

칼빈은 제임스각하가 현재 복음 때문에 고국을 떠나 추방당한 생활¹⁷⁹⁾을 하는 것을 존경하고 있다. 같은 주석의 헌사를 10년 후에 갈리아또 카라치올로 경에게 드리며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는 세속통치자 중에서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많은 것을 버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헌사와 주석을 보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 기독교인 관원은 세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세속정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해야 하며, 세속정치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와 존경을 표해야 한다. 세속정치와 교회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준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의무에서 지나쳐 각기 영역을 침범할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이제 살펴 볼 것이다.

b.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서의 무저항

앞서 세속정치와 교회는 각각 기원과 권위와 임무와 조직이 있으므로,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 후에 서로 간에 임무와 역할이 있음으로 상호관련성이 있음도 말했다. 세속정치와 교회 사이에 상호 연관되어 바르게 일을 할 때는 충돌이 없다. 세속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세로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도 세속정치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고, 도전하면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 때 칼빈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의 무저항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시민정체 사이에 구별이 되므로 서로 간에

178)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헌사)」 (서울: 성서원, 2000), p. 23.

179) 빌헬름 니이젤, *op. cit.*, p. 241: “칼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한다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는 항상 신앙 때문에 가혹한 핍박을 참지 않을 수 없던 그의 같은 국민들에게 인내를 촉구했다.... 신이 순수하게 경배되는 장소에서만 살 수 있다면 천지의 왕 그리스도가 쫓겨다니고 있는 조국에 머물러 있기 보다 추방속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독립성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이 지상에 나타내는 교회와 시민정체에 속해 있는 세속정치와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¹⁸⁰⁾ 세속정치에 대해 교회의 저항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회에 대한 세속정치의 저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세속정치와 교회는 구별되어 있다. 교회는 언제나 “오직(sola)” 성경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자이다. 교회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전 삶에 있어서 주의 깊고 절제있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⁸¹⁾ 이는 모세시대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먹고 사는 것(신8:3)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도구(모세, 선지자들, 사도들)를 통해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자의 생을 구별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원리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며 모든 교회의 교사들만 아니라 신자에게 요구하신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마귀의 시험은 삶의 근원과 방식 및 궁극적 목적에 대한 시험이었다.¹⁸²⁾ 마귀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영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는 것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살고 왜 살며 어떤 목표로 사는지에 대한 원리를 빼앗는 것이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 능력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사람에게서 빼앗으면, 그 일이 다 이루는 것이다. 욕이 시험에 빠진 것은 최고선 자체로서 하나님과 그 속성들에 대한 고백을 빼앗는 것을 넘어 옳은 말과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험에 빠짐에 있다.”

교회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인데, 세속정치가 만일 이에 대해 간섭할 수 없으나, 만일 세속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세속정치에 대해 순종하기를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속정치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세속정치에 대해 불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180) 이은선, *op. cit.*, p. 261.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적인 통치와 국가의 통치(civil government) 사이의 명백한 구별이 여기서 제시된다.”(칼빈, 「Commentary」, Mat 22:21 재인용)

18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1(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0), p. 50.

182) *Ibid.*, p. 50

2) 예외적인 교회의 세속정치에 대한 저항.

칼빈은 세속정치에 대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복종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¹⁸³⁾ 칼빈은 일반 백성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관리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나 종교적인 문제에서 관리들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갈 경우 그것에 대해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⁸⁴⁾ 세속정치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 반대한다면 세속정치의 권위는 그 순간에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 때 교회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근거하여 관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보다 앞서지 못함을 주장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행5:29) 칙령을 선포했으므로, 우리는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자”¹⁸⁵⁾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것 전에 동시에 모든 것 위에 먼저 경청해 들어야 할 자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높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되, 그 분 안에서 외에는 복종해서는 않된다.”¹⁸⁶⁾(*Dominus ergo rex est regum, qui ubi sacrum os aperuit, unus pro omnibus simul ac supra omnes sit audiendus. Iis deinde qui nobis praesunt hominibus subiecti sumus: sed non nisi in ipso*)¹⁸⁷⁾ 이런 개념이 후대에 저항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¹⁸⁸⁾

183) 한철하, “칼빈의 정치론” 「신학지남」, 1962, p. 325.

184) 이은선, op. cit., p. 201.

185) Inst. 4. 20. 32.

186) Inst. 4. 20. 32. “그러므로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께서 입을 여실때는 누구도바도 먼저, 또 누구보다도 더 중요시해서 그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들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주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187) 김영규, 「17c 개혁신학」,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9 (J. Calvin, Institutio, 1536 IV p. 279, p. 38에서 재인용)

188) 김영규 교수에 따르면, 이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대한 입장이 후에 개혁주의 안에서 John Poinet, Christopher, Goodman(1520-1603), John Knox의 저항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 (김영규, 「17c 개혁신학」,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0, p. 38)

이런 정신이 갖는 실천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개혁운동에 참여 하다보면 자기 생명을 각오하는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 가족과 국가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신앙을 필요로 하였다. 여기에 순종과 저항의 독특한 양상이 표출되는 것이다.¹⁸⁹⁾

앞에서 칼빈의 전제들을 살펴 보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권¹⁹⁰⁾을 생각한다. 칼빈은 시민정부에게 올바르게 종교를 세우는 의무를 위탁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시민정부가 거짓종교에 의해 결탁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 하였을 때,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두 가지 면에서 허락되고 있다. 첫째는 백성을 대표하는 관원이(*populares magistratus*)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따라 포악한 왕을 저항하는 길이다.¹⁹¹⁾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사사로운 개인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임들들의 전횡을 억제할 목적으로 임명된 국민의 관리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이 왕들의 횡포한 방종에 대하여 그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미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들의 폭정을 못 본체 한다면 나는 그들의 이 위선을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로 임명된 줄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배반하는 부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¹⁹²⁾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동시에 관원들도 왕의 강박함을 제지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관원들은 자기의 임무에 따라 왕

189) B. b. 2)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 의존하여 쓴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26)

190) 칼빈은 저항권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자기에 대한 저항권, 둘째, 교회안에서 저항권이다. (*ibid.*, p. 39)

191) 에밀 두메르그, *op. cit.*, p. 131: “만일 누군가가 법을 위반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의회, 의원들, 옛날에는 ‘피의 왕자들’이라 불렀던 민선장관들, 장관들, 도시의 장들은 저항권을 갖는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의 그 권리를 갖지 않는다.”

192) 칼빈은 이제까지는 사사로운 개인들(신자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제 Inst. 4. 20. 31. 부터는 임명된 관리들은 포악한 왕과 관원에게 항거해야 함을 역설한다.

과 높은 관원들의 폭정을 방지하고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가운데서 공공연한 복수자를 일으키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며 부당한 압박을 받는 그의 백성을 참혹한 불행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그리하여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하셨고(출3:7-10), 웃니엘을 시켜 수리아 왕 구산의 폭력에서 구하셨으며(삿3:9), 다른 왕들이나 사사들을 통하여 그 밖의 압제에서 구출하셨다.¹⁹³⁾ 만일 관원이 그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로 임명된 줄로 알면서도 자유를 배반하는 것은 극악한 위선이요, 배신행위라고 말한다. ¹⁹⁴⁾

둘째, 개인들일지라도(privates homines)일지라도,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여 명령 하였을 때, 그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의 저항은 인내와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¹⁹⁵⁾ 시민법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¹⁹⁶⁾, 더 높은 그리스도의 지혜에 따라 인내하기를 권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관원과 법에 호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관원에게 저항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폭한 독재를 시정하며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곧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복종하며, 고통을 참으라는 것뿐이다.”¹⁹⁷⁾

193) Inst. 4. 20. 30.

194) Inst. 4. 20. 31.

195) Inst. 4. 20. 32. “나는 절개를 지키는 데에는 어떤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왕은 항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며, 솔로몬은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다.”고 했다.(잠16:14)

196) 시민법을 이용한다는 말은 주권자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때, 법을 이용하여, 관원을 이용하여,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칼빈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정체와 시민정체 사이를 독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이나 관원의 힘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며 관조적인 자세로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다.

197) Inst. 4. 20. 31.

개인으로서의 복종하며, 고통을 참으라는 명령만이 있는 것이다.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 칼빈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칼빈이 관원에 대한 순종과 고난의 원리에 “하나님에게 실족케 됨이 없이 할 수 있는 한”이란 조건이 붙여 있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의 원칙이 있다. 폭군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생득적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를 인도하도록 자신을 맡겼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실족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된다. 사랑을 믿음의 순수성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족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실족케 할 수 없다”고¹⁹⁸⁾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으로부터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향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 인간을 향한 자유를 확대하고 흡수된 자유의 차원이다. 그는 봉기 대신에 구약의 시편기자처럼 종교개혁 시대에서 인내와 깊은 성찰과 기도위에서 머물렀다. 그는 1559년 한 교회지도자(L. Renandie)가 참 신자들의 핍박과 순교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귀족과 상인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기도의 본성과 진행을 보고 그 시도를 칼빈이 거절한 일이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칼빈의 세속정치와 교회와 상호 관련하여 생각할 때, 칼빈의 저항정신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독립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오직 성경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C.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견해의 실천적 의미

칼빈은 그리스도의 엄숙한 법과 그의 말씀이 교회와 세속정부 양쪽에 모두 실현되기를 목표로했고, 혼합되거나 간섭함이 없는 것을 바랐다. 두 권세는 제네바에서 거의 동등하게 조화롭게 행사되었다.¹⁹⁹⁾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 시대에 실천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칼빈의 견해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

198) Inst(1536). 6. A. 10.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실족할까 두려워 해서 생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99) Philip Sahaff, op. cit., p. 471.

다.²⁰⁰⁾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 중에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²⁰¹⁾와 대요리 문답,²⁰²⁾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칼빈의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 사상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 영향을 미치었다.²⁰³⁾ 스코틀랜드 종교개

200)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p. 56: “제네바에서 칼빈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은 1000여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칼빈의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칼빈의 입장에서 있었던 자들로서, 벨직신앙고백(네덜란드신앙고백)을 작성하였던 Guido de Bres(1522-1567), Petrus Dathenus(1532-1603)... 등이 있었다.”

201) *ibid.*, p. 97. “스코틀랜드 개혁에 자극을 받아 그 개혁에 부응한 종교개혁이 웨스트민스터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국가의 위정자라는 제목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잘 고백되어 있다. 그러나 23장 3항에 있는 위정자가 교회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으며 그는 또한 그 회의에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점에 대해 박윤선 목사는 이 신앙고백서의 한 가지 과오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는 국가의 위정자가 신령한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통 장로교회는 이것을 교정하여 교회회의는 교회의 직원만이 소집할 권리가 있게 하였다. 한편 반센(G. L. bahnsen)이란 학자는 이 3항에 대해 변호하였는데 “교회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란 문구의 “권리가 있다”(He has power to call synods)는 “배려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그 당시(A.D. 1656)에 작성된 라틴역을 참고하였으니, 라틴역에는 이 문구가 “주선한다”(prodidere)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했다. 반센의 해석이 옳다면 “위정자는 교회 회의가 열리도록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북미 개혁 장로교는 위의 교리를 본래대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교리를 작성하여 선포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서울: 영음사, 1999)

202) Cf.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답에 보면, 문 124. 제 오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제 오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웃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김의환 편역, *op. cit.*, p. 114) 하이델베르그 소요리문답에 104문(p. 248)에도 5계명에 대한 해설에서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경과 충성심을 보여줄 것과 그들의 주의 깊은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바르게 할 것과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는 인내로서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리문답들이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5계명에서 해설하고 있는데 칼빈의 십계명 설교를 보아도 5계명에서 국가와 세속통치자에 대한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3) 이은선, *op. cit.*, p. 293. “칼빈의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사상은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자들의 하위관리에 의한 저항사상으로 계승되어 카톨릭의 스페인 세력을 몰아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기 닉스와 17세기 루터포드(Samuel Rutherford) 등에 의해 계승되어, 계약사상에 의해 하급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전제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더욱 과격한 사상으로 전개되었고, 영국에서는 폰넷(Ponnet) 주교와 군맨의 저항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혁 역사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²⁰⁴⁾ 칼빈의 동료이며 동시에 제자였던 나스가 있었던 네덜란드 교회도 역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²⁰⁵⁾ 네덜란드 개혁신앙의 규범교리중 하나인 벨직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은 지오도 드 브레에 의해 작성되었다.²⁰⁶⁾ 벨직 신앙고백서 35장에 ‘국가행정(정부)’에 대한 내용 역시 칼빈의 세속정치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런 고백들은 칼빈의 적정선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²⁰⁷⁾

벨기에 신앙고백서²⁰⁸⁾는 1566년 안트워프 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의

204) *ibid.*, p. 106.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신학자들은 존 나스, 존 그레그(John Crag, 1512-1600),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 등이라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종교개혁자들 중 신학적인 종교개혁을 한 자는 앤드류 멜빌이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성경에서 주교와 장로의 개념을 같다는 칼빈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로교의 뿌리되는 입장을 세워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제네바에서 베자나 카아트라이트와 회우와 밀접히 관계한다는 사실도 주목되고 있다.”

205) 김영재 교수는 네덜란드 교회가 칼빈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교회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도움으로 꺾박 가운데서와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운 전쟁의 와중에서도 크게 성장하였다. 칼빈의 제자 지오도 드 브레(Giudo de bres)는 교회 내의 신앙의 동질성을 위하여 「벨기에 신앙고백서」(Confessio Belgica)를 작성하였다.”(김영재, 「기독교교회사」, 서울:이레서원, 2000, p. 463)

206) 브레는 칼빈의 신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브레는 칼빈이 작성한 신앙고백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개혁교회(Reformed Churches)의 신앙고백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앙고백은 존 칼빈(John Calvin)에 의하여 200여년 전에 발간된 것이다.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0, p. 176)

207) 벨직신앙고백 36장. “죄를 지은 자들을 정벌하고 선을 행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들의 직무는 국가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신성한 직무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형편과 자격 또는 조건이 어떠한지간에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어진 의무이다.”(Ibid., pp. 204-205) 36장은 먼저 국가의 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후에 국가에서 종교적인 임무와 사회적인 의무를 함께 서술한다.

208) 벨직 신앙고백서는 1562년 필립2세에게 보내어졌다. 그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목적은 첫째, 자신들은 성경에 따라 참된 기독교의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 변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당시 국가를 혼란케 하던 제세례파나 거짓된 교리를 가진 자들과는 다름을 알리고 있다. 그들은 이 신앙고백에 나타난 진리를 거부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다는 용기로 이 신앙고백서를 보낸 것이다. 브레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다가 순교로 자신의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신앙고백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cf. 김의환 편역, *op. cit.*, p. 175)

대회에서, 그리고 도르트 의 전국 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619년 도르트 회의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와 함께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개혁신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책임자는 반드시 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칼빈의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 후대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칼빈의 설교와 주석과 편지중에 우리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일부분 찾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내어 논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실천적 의미로서 칼빈은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살펴되며, 더 나아가 현 시대에 실천적의미를 찾아봄으로써 우리 시대에 당면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세속정치와 교회의 독립성

칼빈의 세속정치와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견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칼빈 신학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전개해 가야 옳다고 생각한다. 다른 교파와 다른 종교개혁자들과는 다르게 칼빈은 세속정치와 교회의 독립성을 그의 신학의 당연한 귀결로 인정하였다. 교회가 목적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독특한 이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홀로 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 그 자신을 상급으로 이미 교회에 주셨다. 우리를 위한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교회에 주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다.²⁰⁹⁾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최대의 보증이 되신 성격으로 남아 있다.²¹⁰⁾ 아브라함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생명이 보증이 된 것은 이 약속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형벌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앞에 고난을 두시고 친히 벌하시는 것을

209)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 16. “이 계시는 그 내용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하는 크고 하나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은혜계약이란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에서 그 중심과 정점에 이르고 있다.”

210)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1(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0), p. 58.

믿고 있다.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나 성자 안에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말씀이다.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남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선²¹¹⁾과 축복의 원천이시다.²¹²⁾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교회는 세속정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칼빈은 그 시대에 세속정치와 교회와의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는 세속정치와 교회는 각각의 기원과 권위와 임무가 있으므로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²¹³⁾ 양자간에는 혼합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분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독립되어서 서로 의무를 가지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²¹⁴⁾

만일, 세속정치와 교회가 혼합이 되면²¹⁵⁾,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고, 영국성공회와 같이 세속정치의 종노릇을 할 수 있도 있다. 세속정치도 교회의 영향으로 종교를 과도히 핍박하고, 확장시키는 자

211)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선이시요, 모든 선의 기초이시다. “God, and God alone, is man’s highest good. In a general sence we can say that God is the highest good of all His creatures. For God is the Creator and sustainer of all things, the source of all being and of all life, and the abundant fountain of all goods”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Mishigan: Baker Book House, 1984, p. 17)

212) Ibid., p. 61.

213) Cf.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잘 명시되어 있는데, 22장 3항의 내용은 이와 같다. “위정자는 정규 예배시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교회는 세속정치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서울: 영음사, 1999, p. 154)

214) Cf.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위정자가 교회에 대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3항에 고백되어 있고, 교회가 위정자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4항에 고백되어 있다. (ibid., pp. 155-156)

215) 기독교연합신문 2002년 11월 24일자 1면에 보면 “한반도 통일운동 교양 교회일치 적극적 추진”이라는 제목하에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총회선언문을 채택했다. 사회정의실현과 정치민주화 및 세계평화를 지지한다는 총회선언문이었다. 이 협의회는 예장 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 루터교, 기하성, 구세군, 정교회 등 8개 회원교단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들 각 교파들은 세속정치와 교회에 대한 견해가 제각기 다른데, 어떻게 회의를 하여서, 한가지 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연합 운동을 지향하여서 신학과 신앙이 타협되는 현실을 볼 때, 경계해야 하며,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기 영역을 넘어 지나쳐 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점은, 세속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만 주장하면, 세속정치와 교회가 마치 병렬적으로 아무 역할도, 의무도 하지 않는 서로에 대해 무의미해 버리기 쉽다. 더 나아가면 제세례과와 같이 국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존재에 무관심하게 될 수 있다.

관원과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관원과 목회자의 직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으니, 서로 독립되어 활동하는 것이 옳바르다.

관원과 목회자의 구별이 없이 혼합이 되면, 힘을 가지는 목회자가 되어 교회는 세속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하려는 부패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의도를 가지는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관원이 되면 관원이 가져야 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관원과 목회자의 독립성이 주장되나, 완전 분리되는 것은 아니요, 서로가 서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다. 관원은 교회의 예배와 바른교리의 수호를 위해 일해야 하며,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세상에 주어 애국자요, 모범적인 기독교인이요, 모범적인 관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필 때는 신문적인 시각으로 살펴야 하며, 적정과 절도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한다.²¹⁶⁾ 이런 종합적인 숙고 아래 교회와 세속정치의 관계는 바로 정립될 수 있다.

2.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속정치와 교회

a. 교회가 세속정치에 대하여

1) 세속정치에 대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고백하는 교회

세속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한다.

216)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속정치와의 관계에서 신문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살 때, 근본적으로 죄와의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은혜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진리를 뺏으면 되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빼앗은 순간 그의 일은 다 끝난다. 그는 힘과 폭력이 그의 주된 무기가 아니라 과장과 망각과 무지가 그의 더 큰 무기이다. 그는 진리를 먼저 삶에서 빼앗아 가고 진리를 포기하도록 양심을 설득한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101)

1544년 2월 슈파이에르(독일 종교개혁 운동에 새로운 시기를 계획한 국가 회의) 회의에 대비하여 칼빈은 칼5세와 여러 의원들 앞에서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변증하였다.²¹⁷⁾ 이 자리에 섰을때, 칼빈의 심정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 자리는 원래 마틴 부처가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는 칼빈에게 의뢰하였고 부처의 요청으로 회의 개최 전에 이 논문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칼빈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유럽의회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그의 1537년의 의회청원문을 보면 그의 개혁의지가 제네바에서 어떠한지 알 수 있다.²¹⁸⁾ 종교개혁의 건의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였지만, 이런 알림과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회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리고 1538년 그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을때, 소의회에서는 베른에서 사용하는 성찬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이 방식은 로마 카톨릭과도 같은 점이 많았다. 성베드로 교회를 맡은 칼빈과 성 게르베 교회를 맡은 파렐은 고민²¹⁹⁾에 빠지게 되었다. 정치세력에 굴복하여 제네바에 남을 것인가? 성경에 따라 복음을 따르다고 추방을 당할 것인가? 그들은 자신의 신학에 맞는 성찬방식을 거행한 후에, 소의회와 의회와 제네바 총회에 의해 제네바 시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²²⁰⁾

그는 영적인 검에 대해 교회가 제한되는 것과 시민과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성직자의 조절에 대해 동등하게 반대하게 되었다. 그는 결코 세속직임을 받지 않았다. 목회자는 결코 관원이나 의회원에 적격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²²¹⁾ 그가 세속정치에 참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217) 존 칼빈,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서울: 솔로몬, 2002) p. 15.

218) 「개혁신학의 교회론」, 개혁과 조직신학회 세미나 자료, (서울: 개혁과조직신학회, 2002), p. 213. “1537년 칼빈에 의해 사역자회(Council of Minister)에 제출된 논문은 격렬한 논쟁을 낳으며 그 온전한 형태로나 제출되어진 형태로 채택되지 않았다. 성찬식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준수되었던 분기별 시행을 지지하면서, 월별 시행에 대한 요구는 거부되었다. 규율의 소개와 출교나 규율회의의 설립 모두 동의할 얻지 못하였다. 비록 신앙고백이 이전에도 채택되어 왔지만 의회는 시민들에 의해 추종되는 행정관들 자신들이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권고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혼 문제들을 다룰 위임제도 역시 그러하였다.(C. R. X/ I 5)”

219) 헤르만바빙크, 「칼빈과 일반은총」,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p. 140. “수많은 서신교환을 통하여 개혁 사역의 동역자들과 끊임없는 접촉을 꾀 하였다. 그들은 질문이 생기면 칼빈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의 상담자 역할을 하였다.”

220)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p. 32-33

목회자의 신분으로 참여한 것이지, 의회원으로서나 관원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교육과 경제, 법률개정 작업, 사회복지 등 교회의 당회와 시 당국과 협력하여 제네바 시민들의 생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칼빈은 개혁자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수행할 때,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며 협력하며²²²⁾ 진행하였다. 이은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칼빈의 국가관의 특색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회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제네바 사회의 개혁까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교회와 국가에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것이 칼빈의 국가관의 특색이었다”²²³⁾

현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실천적의미를 찾아보자면, 일예로, 북한의 ‘일인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해야 할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롬13:1) 말하면서 권세에 대해 공경하지만, 일인 집권이라는 체제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항상 공정하며 바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소수인의 당파로 타락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중의 지배가 난동으로 타락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여러 정치형태 중에서 귀족정치와 민주정치가 결합된 제도가 낫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의 독특한 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에 의해서 왕들이 군림한다고 명백하게 주장하며(잠8:15) 특히 왕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며,(잠24:21; 벰전 2:17)²²⁴⁾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²²⁵⁾

221) Philip Sahaff, op. cit., p. 472: “But he was equally opposed to a clerical control of civil and sword. He never held a civil office. The ministers were not eligible to the magistracy and the councils.”

222)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총신대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276. “이러한 두 기구의 영역이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종교와 도덕문제에서 협력하여 활동하였다.”, “칼빈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한 도덕적 감화와 함께 시의회의 협력하에 치리함으로써 도덕 개혁을 이루려고 시도하였다.”

223) 이은선, “국가관”, 「칼빈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 390.

일인체제는 사람들의 예속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의 자세만을 갖는다. 칼빈은 주님께 서 지정해 주는 정부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생각은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 왕국들에는 왕들을 세우며 자유 도시들에는 원로원이나 시의원들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사는 곳에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공손히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라²²⁶⁾고 했다. 그리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일인집권에 위험성을 알리고, 더 좋은 체제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글을 쓸 수 있다.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상숭배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저항의 내용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한국 장로교 신앙고백’을 만들어 북한과 중국과 일본의 많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²²⁷⁾ 저항의 성격으로 고백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속정치에 대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파숫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2) 세속에 대해 오직성경으로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할때, 오직 성경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빈의 세속정치를 포함한 세속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독특한 점이 있다. 세속세계에 대한 이해를 오직 성경에서만 인식한다.²²⁸⁾ 그 모든 것을 이

224) Inst. 4. 20. 7.

225)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총신대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149. “그는 세속정치 제도에 대하여 모든 정치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특정한 정치 제도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물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는 구약의 사사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정치 제도와 역사적인 경험과 당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혼합정치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226) Inst. 4. 20. 8.

227) 한국교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대하여 “장로교인 언약(1940)”을 작성하였는데 신앙고백의 형태를 가진 저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쉬운 점은 내용면에서 빈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Cf. 최덕성, 「장로교인 언약과 바르멘 신학선언」,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0)

228)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신학대학원 강의안, 1997, p. 39. “창조계시 혹은 일반계시에서도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

해할 때, 성경에서만 이해하되 성경을 주신 주체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격이다. 이런 점에서 세속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세속정치와 세속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김영규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사회윤리나 과학적 의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오직 성경만 먹고 마시는 삶의 차이일 것이다. 사실 사회나 국가가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함께 운동하고 같은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 궁극적 해답을 주는 것이다. 칼빈의 욕기 주석에서 나타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차원과 방식이 다른 것이다”²²⁹⁾

그리하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늘 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쳐야 한다. 파숫군의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로 그 증거가 약할지라도 교회가 모든 피조물들, 예술과 학문,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이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요구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²³⁰⁾을 기억하고 오직 성경으로 전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설교와 도덕적 증거 ²³¹⁾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인, 즉, 사람의 힘을 규합하여 회집하여 운동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혹은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하거나, 무력을 동원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²³²⁾

칼빈은 ‘오직성경’만으로 설교와 주석저술과 책을 저술하며, 세속에 대해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칼빈의 생애는 교회를 위한 생애였으며 그가 일생 동안 행했던 신학작업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²³³⁾ 그는 생애 오랜 기간동안 주석을 집필했다. “1540년 3월 스

하고자 하나, 그 계시의 본질적인 성격을 오직 성경에서만 인식한다는 점에 강조를 둔다.”

229) 김영규, Ibid., p. 39.

230)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대신대원 강의안, 2000), p. 30.

231) 김영규, Ibid., p.30. “이 요구는 설교요 도덕적 증거일 뿐이요, 결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강요나 형벌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다는 것”

232) 요즘 현대 신학자들 중에 칼빈의 신학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233) 김성봉,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교회와 문화」 제 4 호, (서울: 하나,

트라스부르그에서 로마서 주석을 시작으로 1564년 5월 17일 제네바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25년 동안이나 이 주석 집필에 전념했다.”²³⁴⁾ 그렇게 교회를 위한 신학을 펼치기 위해 그 진리를 바로 드러내었다. 그 주석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가 저작한 주석은 대부분 세속 집권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읽혀졌고, 그들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칼빈의 주석과 그 주석의 헌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받았던 수신자들에 대해 알게 된다. 왕과 영주와 의원들의 이름으로 출판하고 있다.²³⁵⁾ 칼빈이 세속적 정치자인 집권자들에게 보내었다는 점과 그들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세속적 정치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는 유럽의 개혁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혹은 개혁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집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주석을 보내기도 하였고, 귀한 세속정치가들의 신앙을 널리 알리어 그 신앙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²³⁶⁾ 그는 헌정함으로 개혁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빌헬름 노이저는 그의 저작 “칼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유럽 국가들 안에서 발생한 개혁주의 운동들에 대해 칼뱅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유럽국가들에서도 개혁이 점차 확장되도록 노력하였다.²³⁷⁾

우리가 현 시대에도 교회가 세속정치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모습은

2000), p. 119.

234) Loc., cit.

235) 김성봉, op. cit., pp. 120-121. 여기에 보면에 성경의 책별로 세속정치가 들의 이름으로 기록한 헌사의 명단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236) 존 칼빈, 「성경주석(공관복음)」,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38. 칼빈이 세속정치가들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 명망 있는 분들에게서 탁월한 용기가 드러날 경우 이것을 하늘 높이 칭송하여 널리 알리고 못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을 선두에 세워 따라가도록 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37) 노이저는 따르면, 프랑스에서 칼빈은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개혁을 했다며 칼빈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칼빈을 오해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조금은 특별하게 진행되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반하여 그의 조국에서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이다.” “제네바로 돌아 왔을 때, 그는 프랑스의 정치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그는 오직 한가지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의 관철과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들의 짐을 더는 일이었다. 칼뱅은 정치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빌헬름 노이저, 「칼뱅」,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2000, p. 189.)

설교를²³⁸⁾ 함으로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하며, 바르고 좋은 말씀에 입각한 책을 저술해 내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직책(ad docendi munus)에²³⁹⁾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인간의 협박으로나 어떠한 권위의 형태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²⁴⁰⁾ 더 나아가 교회에는 가르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와 자비의 권세가 있어 교회 안에서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직분과 제도를 주셨다. 이런 교회의 권세 아래 있는 기독교인은 도덕적인 양심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며 살도록 해야 한다. 설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바른 정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시56:10)

3) 세속정치에 대하여 오직성경으로 저항하는 방식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보면, 세속정치와 마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가 조용하고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전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참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계와 만날 때 이런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²⁴¹⁾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관원과 법에 호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

238) 김성봉,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특강,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p. 8. 김영규교수의 결론적인 말을 정리해 준다. “설교를 해야 하고 또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변화무쌍한 새시대가 도래한다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239)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대신학대학원 강의안, 2000). p. 27. “개혁주의 교회는 더 나아가 가르치는 권세 곁에 사법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사법권은 국가의 사법권과는 다르고 영적인 성경을 띠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 대신 다스리는 권세, 규정하는 권세, 권징의 권세 등으로 대신한다.” 종종 가르치는 권세와 권징의 권세 옆에 규칙의 권세를 두었다. 여기에는 집사직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스도께서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어떤 권세를 그의 교회에게 선물하였다.”

240) 존 칼빈, 「성경주석(사도행전)」,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167. John Calvin, 「The ages digital library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 by Henry beverid,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8). “And as for those which are called unto the office of teaching, let them be terrified with no threatenings of men, with no color of authority”

241)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대신학대학원 강의안, 1999), p. 12.

씀의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관원에게 저항할 수 있는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칼빈의 법 이해를²⁴²⁾ 오해해서는 안되며, 잘 살펴 보아야 한다.²⁴³⁾ 칼빈은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²⁴⁴⁾과 유대인의 의식에 관한 의식법과 재판에 유대시민 생활을 위한 재판법으로 율법을 구분한다. 어떤 나라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의식법과 재판법이 폐기되어도, 의식법이 명령하는 경건이 보존되며 시민법이 명령하는 사랑이 보존되면서 도덕법의 공정성에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를 두고 제정될 수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상황과 의식이 다르므로 이 도덕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²⁴⁵⁾을 제정할 수 있다. “다른 법들을 시인하며 채택할 때에는 단순한 비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보아서 한다.”²⁴⁶⁾ 이렇게 제정된 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도 평온하고 온건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에 대해 친절을 유지하면서도 법관의 도움을 얻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²⁴⁷⁾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송을 배척하지 않으나,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는 칼빈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과 평화를 지키는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세속정부가 핍박할 때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잔인한 군주가 우리를 학대할때, 신앙의 핍박을 가할때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잔인한 군주가 우리를 학대할때, 욕심이 많거나 방탕한 자가 우리를 착취할때, 태만한 자가 우리를 무시할때, 악하고 모독적인 자가 신앙을 이유로 우리를 괴롭힐 때, 이런 때에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비행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비행은 확실히 주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다.(단9:7 참

242) cf. Inst. 4. 20. 14-21.

243)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총신대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p. 159-194.

244) Inst. 4. 20. 16.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 법칙의 증거에 불과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 양심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245) Inst. 4. 20. 16.

246) Ibid.

247) Inst. 4. 20. 20; 17.

조).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며 불안과 초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병폐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다만 주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을 뿐이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으며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²⁴⁸⁾

그러므로 나쁜 지배자 밑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법적인 권리로 저항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의 명령에 따라 인내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다.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만 저항하는 방식을 가진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초판의 최초의 의도는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견본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성격은 순수한 교리(sana doctrina)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변증하려고 저항 수단으로서 책을 쓰고 있다.²⁴⁹⁾ 이런 내용은 기독교 강요를 쓰는 목적이므로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나 핍박을 하는 자 사이에 오해와 반목과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영적인 신앙론에 대해 써 내려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성질이 다른 것 같은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을 논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극단적인 세력들이 주위에서 혼란스럽게 하므로 국가 통치에 대하여 펜을 들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에서 “그 자신이 의의 심판자로서 그의 규례에서 벗어나서 그의 뜻을 어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상이다. 이 후자의 정신은 적정과 절도의 규범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²⁵⁰⁾ 이런 자세로 세속통치자인 프란시스 1세에게 선지자적인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과 성부가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교리를 가지고 계시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사명이나 종교적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248) Inst. 4. 20. 29.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시82:1)

249)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 1」,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p. 23.

250) Ibid., p. 26.

자(Dei ministrum)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흠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sanctum Dei verbum)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가 아니라 도둑질 하는 자가 된다고 감히 선포하고 있다. 그들 자신들은 그들의 대적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같은 무기로 싸우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다.”²⁵¹⁾

종교적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성경으로 섬겨야 한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인데, “마귀가 싸우고 있는 교회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18에서 예수님 자신이 암시해주는 것은 그런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비하의 신분으로 계실 때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속성들을 손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보이는 교회와 싸우는 본질적인 탈취물이라는 사실이다.”²⁵²⁾ 교회가 지켜야 하고, 싸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분에 대한 지식이므로, 오직 성경으로 자기를 향하는 죄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지 세속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회에게 있어 무기는 오직 성경²⁵³⁾과 기도뿐이다.(시56:4,9)

251) 김영규, Ibid., p. 24.

252) 김영규, op. cit., p. 12.

253) Cf. 김영규교수의 “21세기를 대비하는 개혁교회상”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21세기 개혁교회의 무장정신들을 세가지로 말하고 있다. 1) 일반종교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칼빈의 정신과 같이 문화적 관조주의가 필요하다. 2) 이미 개혁된 진리 즉 우리의 헌법을 지켜나가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3) 개혁주의 핵심교리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3) 개혁주의 핵심교리를 4가지 정도로 요약하였다. ① 저항의 개념으로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ad resistendum) ②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창조와 섭리, 구원의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③ 교회의 통일성, 구원의 성취와 그 서정의 뿌리를 예성론에 두어야 한다. ④ 은혜언약의 핵심사상이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①번의 ‘저항의 개념으로서 오직 성경’을 설명하는 구절을 소개한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무기로서 혹은 저항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주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항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은 보다 큰 저항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다. 진리에 대한 고집 자체가 사회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긋는 것도 진리 자체만을 사랑한다는 선포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에 방해가 되는 어떤 과도함이나 가장이나 침묵을 배제하는 것이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행위이다. 말씀만을 선포하고 바른 성례의 고집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는 오직 말씀에 의한 저항일수 있다는 것이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p. 85-101)

4) 세속정치에 대하여 기도하는 교회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한 신자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영적인 무기는 기도이다. 칼빈은 이사야 주석 헌사에서 에드워드 6세에게 기도로 왕을 돕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본인은 전하를 도울 더 좋은 방법이 없기에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노력에 협조하겠습니다. 이 일은 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²⁵⁴⁾

이를 보아 교회와 목회자의 의무는 세속정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기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칼빈은 언급하고 있다. 예레미야 설교에 보면 세속정치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위있는 자들 중 백성을 망하게 애쓰는 악인을 허락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합니다.”²⁵⁵⁾

하나님께 악한 통치자를 세워주시지 말고, 선한 세속통치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속통치자들을 다스리시고²⁵⁶⁾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²⁵⁷⁾ 교회는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나라에 재난과 재앙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

254) 존 칼빈, 「성경주석(이사야1)」,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32.

255) 존 칼빈,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0, p. 52.

256) 23장 4항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임을 말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G. I. 윌리암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p. 385)

257) 벨직 신앙고백서 36장 국가 행정(정부)장에 세속통치자를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이리므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딤후2:2)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김의환 편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p. 205)

님에게 비롯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당하는 재난도 하나님의 채찍임을 말하며,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심을 말하였다.²⁵⁸⁾ 정치가의 폭정이거나 그 나라의 민족이 당하는 재난을 하나님의 채찍의 손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나라나 개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 시대에도 여전히 세속통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자비를 계속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민으로서 세속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²⁵⁹⁾

5)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세속정치를 양육하는 교회

세속정치와 교회가 각자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세속정치가들이 많아지면 더욱 잘 구현된다. 교회는 이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섭리에 의해서 지상의 모든 일이 세속정치가들이 다스린다. 칼빈은 다스리는 것을 은사로 이해하고 있다.

“바울은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은사의 하나(롬12:8)로 인정하는 것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임이 분명하다.... 바울은 원시교회에서 공적 규율을 유지하며 주관하는 근실한 사람들의 회의에 대해서 말하고 이 직책을 고린

258) 존 칼빈, *op. cit.*, p. 61, “혹사병이 그치자 이번엔 기근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삼키는 수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채찍이 보이지 않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259) Cf. 빌헬름 니이젤에 따르면,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을 택할 줄을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복음의 대적이거나 종교를 경멸하는 세상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행정직이나 재판하는 지위에 초빙되면 하나님 자신이 민중가운데 추방되는 셈이라고 한다.(빌헬름 니이젤, *op. cit.*, p. 238). 김영규 교수는 국가 지도자나 위정자의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자랄 때의 도덕적 청결함을 교회가 적극 요구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했다. 그리하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운동으로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분위기와 가정과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했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하나, 1998, pp. 88-89)

도서예(고전12:28) "다스리는 것" 이라고 부르지만, 정부가 하는 일도 이와 같은 것이므로 사도가 모든 종류의 공정한 지배를 우리에게 천거한다는 것은 분명하다."²⁶⁰⁾

칼빈은 다스리는 것을 세속정치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이어 그는 거룩한 분들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다윗, 요시아, 요셉,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신 것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영예로운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정권은 하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²⁶¹⁾ (Quare nulli iam dubium esse debet quin civillis potestas vocatio sit, non modo coram Deo sancta et legitima, sed sacerrima etiam, et in tota mortalium vita longe omnium honetissima)

칼빈은 교회 목회자나 세속정치가나 모두 동일하게 사역자라는 단어를 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직분의 명칭이다. 이런 세속정치자들에게 대한 이해를 한국교회는 가져야 할 것이다. 현 시대 한국교회는 세속정치가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 편에서는 세속정치가에 대해 세속적인 직업이므로 기독교인은 그런 직업을 피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정치세계에서는 신앙을 지키며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 혹은 종파의 사람들이 세속정치가가 되어서 정치를 힘입어 종교를 확장시키려는 부류도 있다. 이런 양극단은 우리 사회에는 볼 수 있는 치우친 모양이다. 한국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바른 신학을 견지하고 있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교회에서 가르치고 알려야 할 것이다.

칼빈의 세속정치가에 대한 이해는 정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임이며, 어

260) Inst. 4. 20. 4.

261) Inst. 4. 20. 4.

는 소명보다도 훨씬 영예롭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대표 이를테면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²⁶²⁾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경건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정치가를 양육하여 세속통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자주 언급했던 이 말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다윗이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했을 때, 그는 그들이 그 권위를 버리고 사생활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권력을 그리스도에게 바쳐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위에 군림하시게 하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열왕이 교회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이 교회의 유모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사49:23), 그들의 영예를 빼앗지 않고 도리어 고귀한 칭호를 주어 하나님의 경배자들의 수호자로 삼았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상했기 때문이다.”²⁶³⁾

세속정치에서 관원들이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알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성경에서 예로 든 경건한 인물들과 같은 개혁주의 관원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6) 칼빈의 태도와 같은 문화적 관조주의를 가지고 살아감

칼빈의 일반은총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있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²⁶⁴⁾ 일반은총의 개념이 필요한 때는 성경에 대

262) 이 내용은 본 논고 ‘세속정치의 권위’라는 항을 보아라.

263) Inst. 4. 20. 5: “For where David urges all kings and rulers to kiss the Son of God (Psalm 2:12), he does not bid them lay aside their authority and retire to private life, but submit to Christ the power with which they have been invested, that he alone may tower over all. Similarly, Isaiah, when he promises that kings shall be foster fathers of the church, and queens its nurses(Isaiah 49:23), does not deprive them of their honor. Rather, by a noble title he makes them defenders of God’s pious worshipers; for that prophecy looks to the coming of Christ”

264) Cf.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2002. 11. 12.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강의 녹취자료. “중생된 의미에서 일반계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보는가? 대답이나 도피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재발견된다. 어떻게 중생된 이후에 회복된 눈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별계시의 목적과 관련되어 특별계시로 일반계시를 다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은총으로 본다. 그

한 고백이나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다.²⁶⁵⁾ 그러므로 일반은총을 누리는 곳으로서의 세속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 교회의 삶과 일상적 삶을 포함하는 이 세상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성도의 삶을 종교생활 이외에 일상의 삶을 포함시키고 있다.²⁶⁶⁾ 일상적 의무를 수행하는 곳은 세속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성도들이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 행동하는 곳이 세상인데,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이 없어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 중에 특히 세속정치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행함은 구호로만 끝나고, 교회안에서만 머무는 이론적 신앙으로 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터전을 바로 알고, 그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세워, 우리 신앙의 행실도 성경적으로 열매맺을 수 있어야 겠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우리에게 최상의 안목을 주고 있다. 칼빈은 어느 개혁자의 신학보다도 삶 그 자체를 강하게 강조한 인물이다. 칼빈은 종교재판소²⁶⁷⁾를 만들어 “도덕경찰”(moral police) 제도²⁶⁸⁾ 창출에 관여하였다. 칼빈이 성도의 삶과 세

런 의미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새로운 의미이기 때문에 증생된 자에게 새로운 책임과 사명을 묻는 그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 확대되는 것으로보는 것으로 아브라함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로 보는 것인데, 이상하게 자유대학에서 그런 이념으로 세웠는데, 실패했다.”

265) 김영규, op. cit., p. 40. “칼빈은 일반은총에 대한 개념이나 입장이 성경에 대한 고백에 대한 도입의 성격에서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관조주의에 대해 p. 86-89를 보라.

266) 헤르만 바빙크, “칼빈과 일반은총”, pp. 134-135. “독선적 인간의 계율이나 교회 계율을 다 지킨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온갖 교회행사에 다 참여한다고 완전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적 의무를 충실히 다할 때 비로서 완전한 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

267) “이것은(종교재판소) 정통교리를 지키고... 세속적 유희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막았고, 가정생활, 유아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상가의 상인과 공장의 기능공을 감시하였고, 삶의 모든 영역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소방관서, 야경, 시장, 편의시설과 거리청소, 상업과 공업, 소송사건과 올바른 행정에 대한 법규 초차도 칼빈 저술 가운데서 발견된다” (헤르만 바빙크, *ibid.*, pp. 136-137)

268) “칼빈이 도입한 이 제도에 대한 비난이 줄곧 있어 왔지만 결코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도 전혀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이 썬빙글리를 본받아 주장했던 이 제도는 단순히 종교적, 교회적 혁신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포괄하는 도덕적 개혁을 의도한 것이다. 칼빈과 썬빙글리는 모두 다 로마교회의 유대적 자기의의(self-righteousness)를 철두 철미하게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사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대하고 배격하였다. 양자는 모두 국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도되고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헤르만 바

속정치까지 말씀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당시에는 대단히 필요하고, 생산적이었지만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제도의 원리적인 이해를 이 시대의 세속 정치가들이 가진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세속정치 이해는 오늘날과 연속되는 면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나누어 살펴보면 오늘날과 칼빈의 시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⁶⁹⁾

세속정부는 바른 종교가 세워지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자유가 보호되도록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가의 정치체계를 바꾸려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국가의 법률하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현 시대에 적용하자면, 정통장로교의 유산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다양한 ‘도덕적 실정법’(moralis-positiva lex)에 의해 적극적 문화관을 설명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적 원리인 율법의 제3사용으로서 중생한 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요구한 본성에 의해 동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영원한 법으로서 요구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의 안식일이요 일주일의 첫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세속문화에도 유효한 법을 가리키며, 십일조를 도덕적 실정법으로 사용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회의 보이지 않는 경제의 활력소로서 제도화될 수 있다. 안식년 제도는 고용제도와 실업문제, 휴가문화를 창출하는데 내적인 원리로서 사용될 수 있고, 일부일처제도 그런 법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회를 기독교 문화화하는 기틀이다. 예를 들어 국가 지도자나 위정자의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자랄 때의 도덕적 청결함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운동으로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분

뱅크, *ibid.*, p. 137)

269) 박건택 교수에 따르면, 칼빈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연속성과 비연속성 관점에서 말한다. “칼뱅의 설교에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시대의 울타리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구분을 통해 바른 관점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존 칼빈, 「예레미야 설교」, p. 10)

위기와 가정과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예들 외에도 성경에 있는 여러 도덕 윤리 문제들도 마찬가지이다.²⁷⁰⁾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문화적 관조주의의 경우, 잘못된 것을 분명히 고백으로 표현하나, 그것을 바꾸거나 파괴하려 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도록 하는 방식”²⁷¹⁾으로 한다.²⁷²⁾ 사회의 변화와 소동에는 민감하고 적극적이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세속정치가 교회를 향하여

종교적인 사명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는 교회 임직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사명이나 종교적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Dei ministrum)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홀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sanctum Dei verbum)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가 아니라 도둑질 하는 자가 된다고 감히 선포하고 있다. 그들 자신들은 그들의 대적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같은 무기로 싸우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다.”²⁷³⁾

1) 교회의 공적예배와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도록 하는 정치

세속정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와 이 설교의 책임을 맡은 교회를 보호하며 이를 맡은 교회를 보호하며 돌봐주는 일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²⁷⁴⁾ 그는 제네바 시의 지방장관과 의원들에게 보내는 요한복음 헌사에서 그들의 두가지 책임을 밝히고 있다.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주신 교회를 수호하고 양육하는데 경건한 사명을 지키기

270) 김영규, op. cit., pp. 86-89.

271)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서울: 하나, 1998), p. 87.

272)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살며 진정한 조국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마치 순례자, 나그네, 순교자로서 살아 가려는 태도가 거기 나타난다.

273) 김영규, op. cit., p. 24.

274) 신복운,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1973, p. 16.

위하여서는 그들의 어떠한 술책과 위협이라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이 책임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거룩한 권세로 악한 적대자들을 대적하여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를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의 주된 노력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속통치자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잘 준수해 주기 바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 그의 이사야 헌사에 엘리자벳 여왕께 드리는 헌사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렇다.

“... 순전한 교리의 핍박으로 인해서 한동안 영국에서 본 주석이 추방당하였지만 이제 전하의 복된 전하의 통치의 혜택을 입어 종전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전하께서 담당하셔야 할 이 의무는 교황청의 부정을 제거하시고 얼마 전에 전율에 떨고 감금을 당했던 양 때를 소중히 여기 실 뿐만 아니라 불경건이 사라지기까지 조국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태어난 조국을 떠나는 편을 선택하였던 망명자를 불러 모으심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²⁷⁵⁾

칼빈은 제네바에서 영국으로 이사야 주석을 헌사와 함께 보냈다. 그는 교리의 바른 전파와 보존 그리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에드워드 6세에게 부여된 임무를 행하라고 권하면서, 이방 고레스왕이 포로들을 귀환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만, 에드워드 왕은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일뿐 아니라 왕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맘으로 글을 전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임무에 대해서 구별하여 말해 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속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연구해야 한다. 창세기 헌사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헨리이지만 바른 교리의 교육을 위해 이 글을 써 보냈다.²⁷⁶⁾ 칼빈은 헨리에게 이 책을 정독해 보

275) 존 칼빈, 「성경주석(이사야)」,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23

276) 존 칼빈, 「성경주석(창세기)」,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26

“비록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당신 나이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당신에게 정독해 보라고 부탁

고, 연구해 보라고 보낸 것이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모세의 글을 읽고 적용하며 살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요시야 왕을 쓰시는 모습과 다윗의 신앙의 삶과 히스기야가 거룩하게 산 것을 예를 들어 왕자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맘으로 인용하고 있다.²⁷⁷⁾

현시대에 세속정치가들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예를 하나들자면 이렇다. 중국같은 경우에 중국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문을 열어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참된 예배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중국은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때 바른 교리를 가지지 않는 이단과 거짓 종교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미신과 거짓이 누룩같이 퍼질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이런 역사는 사단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사단은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는 순간 온 수단을 강구해서 순수한 것을 더럽히려 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곧장 무수한 이단이 확산하는 것이다.”²⁷⁸⁾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각 곳에 교회를 형성하는 곳마다 사역자와 목사를 세우는 일을 허가하고 돕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그로 인해 큰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2) 우상숭배와 미신을 억제하는 세속정치

앞에서 세속정부의 임무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인간성이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며. 세속정부는 우상숭배와 미신에 대해서 억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며, 법의 제정에 있어서 우상숭배와 미신에 대해 벌을 주는 법까지는 인정하였다. 이런 그의 세속정치에 대한 견해를 그는 실천하였다. 칼빈은 1559년 5월 26일에 롱구에빌레(Longueville)공작에게 편지를 보내어²⁷⁹⁾ 그에게 우상숭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하는 저의 제안이 타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일은 아닙니다.”

277) 존 칼빈, *Ibid.*, p. 30. “경건한 독자들이 모세가 묘사하고 있는대로 고대 교회의 본을 자기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배우기만 한다면 참으로 많은 대가가 그들의 노력에 보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278) 존 칼빈, 「성경주석(사도행전)」,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2001), p. 435.

279) 존 칼빈,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Vol 5, Letters, Part 2 1559-1564*」, David Consta, (Albany: Ages Softwear, 1998)

와 그 시대의 무질서에 함께 하지 말기를 촉구했다.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권면한 것이다. 사단의 역사로 미신과 우상숭배가 유혹할 쥘라도 성령의 은혜로서 인내하며, 계속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독교관원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나라에 우상숭배와 미신을 억제하는데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취를 감추고, 백성들은 혼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모든 것은 미신이다. 칼빈은 이런 죄에 대해 세속정부가 벌을 주어 제제할 수 있음을 이미 앞에서 밝혔고, 십계명 첫째판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각 시대와 형편에 맞게 세속정치자들이 법을 제정하여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다.²⁸⁰⁾ 이것은 세속통치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칼빈도 역시 그 시대에 제네바시의 관원들이 제정한 법에 대해 인정하였음을 본다. 칼빈은 여러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로 배정된 것을 인정했듯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그들이 세운 법을 공손히 복종하는 것을 교회의 의무라 생각했다.²⁸¹⁾ 이에 대해 그 나라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원은 우상숭배와 미신을 억제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부패하거나 소멸되었을때, 그것을 재건하여 종교를 보호하고 예배를 바르게 한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칭찬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부패하거나 소멸되었을때에 그것을 재건하거나

280) 기독교강요 4권 20장 9절의 제목이 ‘율법의 두 돌판에 대한 고려’이다. 세속권세가 율법의 첫째판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건을 제일 관심사로 삼지 않으면 원만한 정부를 수립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일만을 돌보는 법률은 본말을 전도한 것임을 모든 학자가 인정함을 밝히고 있다.

281) Inst. 4. 20. 8.

종교를 보호하며 순수하고 흠없는 종교가 융성하도록 한 거룩한 왕들을 성경에서는 매우 칭찬한다.”²⁸²⁾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인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예로 들어 그들이 세속권세자의 자리에서 행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것은 공평을 실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모세가 주의 권능에 의해서 동족의 해방자로 임명된 것을 자각했을때에 애굽사람에게 손을 댄 것도(출2:12; 행7:24) 이런 염원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족의 신성모독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루에 삼천 명을 죽인 것도 같은 동기였다.(출32:27-28) 다윗이 그의 임종시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같은 뜻이었다.(왕상 2:5-6, 8-9).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라고 솔로몬을 칭찬한 것도(시 45:7)이 부류에 속한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성격을 가졌던 모세가 왜 이런 야만성이 불타올라 진중을 왕래하면서 형제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피가 사방에 낭자하게 만들었는가? 또한 일평생 극히 온유하던 다윗이 어떻게 임종시에 요압과 시므이의 백발이 평안히 묘지로 가지 못하게 하라고 아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유언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벌을 시행함으로써 그 잔인한 행위로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만일 사람을 아꼈다면 자기 손을 더럽혔을 것이다.”²⁸³⁾

이렇게 세속정치자가 정의와 공평²⁸⁴⁾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자한 정신으로 판결되어야 함을 끝이여 지적한다. 솔로몬의 말과 같이 왕위는 인자로 말미암아 가장 견고해 진다(잠20:28)고 했다. 집권자는 양쪽에 다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칼빈의 말은 다음과 같다.

282) Inst. 4. 20. 9.

283) Inst. 4. 20. 10.

284) Inst. 4. 20. 9. “정의는 무죄한 사람들을 지켜 주며, 감싸주며, 보호하며, 변호하며,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평은 담대한 악인들을 막고 그 폭행을 억압하며 그 비행을 벌하는 것이다.”

“집권자의 양쪽에 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엄격으로 병폐를 고치기보다 해를 주게 되든지 또는 관용에 대한 미신적인 애착으로 가장 잔인한 온유에 빠질 수 있다.”

기독교관원이 하나님께 경외함에 대해 태만하게 행하고, 사람들 사이에 정의만을 유의한다면 후에 변명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지배자들을 임명하시고 훨씬 더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해야 하는 일은 무시하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우매함을 증명한다.

현 시대에 기독교관원들은 이런 원리로 실정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사회와 같은 제정분리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에서는 이런 법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억제되도록 세속정치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도덕법에 근거한 실정법의 제정과 집행에 대해

세속정부는 국민들을 다스릴 때나, 법을 정하며 실시할 때, 성경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모든 문제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특별히 지시하거나,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나, 모두 복음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²⁸⁵⁾ 예를 들어 혼인과 이혼, 안식일과, 사형문제 등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면서 공중의 유익과 국가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속권 세자들이 법을 제정할때, 도덕법을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아야하며, 그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정될 수 있다.²⁸⁶⁾ 칼빈은 모세에 의해 공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모세에 의해 공포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분류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의 각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와 관계되며 어

285) A.A.하지, op. cit., p. 388.

286) 아브라함 카이퍼가 1898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세 번째 강연한 ‘칼빈주의와 정치’의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혁명과 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미국의 혁명과 법제정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김지찬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pp. 105-111)

는 것이 무관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²⁸⁷⁾

칼빈에게 있어서 의식법과 시민법의 영역 외에 십계명과 연관된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도덕법으로 이해했다.²⁸⁸⁾ 칼빈이 도덕법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증거에 불과하며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본다.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⁸⁹⁾

이 도덕법이 실정법 제정의 공정성에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이 공정성만이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개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공정성만이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되어야 한다.”²⁹⁰⁾ “도덕에 관한 율법이 없으면 도덕의 진정한 거룩함이 지탱될 수 없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불변의 표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²⁹¹⁾

그러나 그 도덕법의 표준에 따라서 구성되며 그 목표를 향하며, 그 한계를 지키는 법이라면, 그 법은 정당하다. 유대인이 그들의 상황에서 가졌던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나, 간음에 대한 형벌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스스로 지키며 보호하시기로 하셨을때에, 특히 그들에 대한 입법자가 되기로 하셨다.²⁹²⁾ 그래서 현명한 입법자답게

287) Inst(1536). 6. C. 48.

288) Inst. 4. 20. 14; 16.

289) Inst. 4. 20. 15.

290) Inst. 4. 20. 10.

291) Inst. 4. 20. 14.

292) 하나님이 십계명(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후에 주신 출애굽기 21:1 이하 율례(律例)를(시민법 또는 재판법) 주셨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

그들을 고려해서 법을 제정하셨다. 재판에 대한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명령한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존하려는 의도만을 가진 것이었지만 사랑의 교훈 자체와는 다소 다른데가 있었다. 재판에 관한 모세 율법을 폐지해도 사랑해야 한다는 영원한 의무와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고²⁹³⁾ 이 원리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실정법들을 제정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하여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법들을 시인하며 채택할 때에는 단순한 비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보아서 한다.”²⁹⁴⁾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용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 신중히 고려하는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이런 법 이해를²⁹⁵⁾ 가지고 세속권세자들에게 법제정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²⁹⁶⁾ 그들과 대화하며, 협조하여 제네바에서 목회하고, 세속정치와의 관계를 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대시대에 조명해 생각해 보자. 칼빈은 4계명 안식일 계명을 도덕법으로 해석하였다.²⁹⁷⁾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율법이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때부터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방식으로 비유를 심어놓으셨다. 그 분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6일간 주시고, 7일째는 쉬시므로 자신이 직접 안식일을 지

293) Inst. 4. 20. 15.

294) Inst. 4. 20. 16.

295) 칼빈의 법 이해는 다음을 참고하라. (cf. 이은선, *op. cit.*, p. 159-194), 칼빈의 법 이해는 후대 개혁주의 율법이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cf. G.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9, pp. 228-42;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p. 70-81; G.보스 「성경신학」 이승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175; 이지키엘 훅킨스, “십계명 이해,” 「구약신학논문집(1)」 운영탁 역, 성광문화사, 1993)

296) 이은선, *op. cit.*, p. 282. “그리고 관리들이 개혁 활동을 추진하는 데서 칼빈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그들의 상당한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정정치는 성직자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 법률, 경제 그리고 교육 등의 활동 분야에서 관리들의 독립된 영역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직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297)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의 바른 노선의 요점의 내용 중에서 주일성수와 예배의식들에 대해 보아라. (cf. 김영규, 「17c 개혁신학」, pp. 41-53)

키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 세상에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날을 바꾸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서 제사의 법을 성취하신 날이므로 안식일의 의식법은 폐지된 것이요, 도덕법으로서 안식일은 주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 된 것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통치자는 실정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 도덕법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세속정치는 이 정신과는 벗어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있다. 주일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든지, 국가고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예이다. 이에 대해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교회는 바른 안식일에 대해 설교로 가르치며, 바른 안식일 준수에 대한 책을 저술하며, 세속정부에 대해 오직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세속통치와 교회는 독립성이 유지되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한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속통치자들의 전쟁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잠시 살펴보자. 아무 권리도 없는 외국에 침입해서 괴롭히는 원수는 그가 왕이건 가장 미천한 사람이건 벌을 받아야 한다.²⁹⁸⁾ (Inst. 4. 20. 9; 10; 11) 국가를 위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세속정치가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⁹⁹⁾ 필요하다면 동맹과 기타 민간 방위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뿐 아니라 전쟁을 하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비대와 동맹 관계와 기타 민간 방위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수비대”는 국경을 방위하기 위해서 도시들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은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때에 서로 도우며 협력해서 인류의 적을 타도하자는 인근 군조들의 조약을 의미한다. “민간 방위 수단”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사물을 의미한다.”³⁰⁰⁾

298) Inst. 4. 20. 11.

299) cf. Inst. 4. 20. 10;11;12.

300) Inst. 4. 20. 11.

이로 미루어 보아 칼빈은 군대의 필요성도 이야기 했고, 국가가 협력하여 인류의 적을 대적하는 것도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군대에 대해, 군선교에 대해 깊은 열려지는 것이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도 군인으로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무기에 호소하기 전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인류의 공통된 본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을때, 국민의 평화와 보호를 위해서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전쟁으로 방어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 속에 군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외국과 방위조약을 맺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III 결 론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개혁교회의 바른 노선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고 제각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교회역사에서 수없이 과오를 반복하여서 진통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논자는 다른 교파에서 말하는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진술하였다. 카톨릭은 교회가 세속정치까지 다스리는 과오를 범했으며, 영국성공회는 세속정치가 교회의 권한을 침범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과오를 범했다. 재세례파는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교회와 세속정치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 후에 이를 극복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진술하였다. 루터는 카톨릭과 제세례파의 과오를 개혁하여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독립성을 주장하며, 각각의 권세와 임무를 찾아 밝히는 공헌을 하였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는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세속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듯한 논점이 있고, 둘째, 그는 복잡한 현실 속에 그의 견해를 견고히 하지 않고 타협했으며, 셋째, 세속권세에 대해 복종하는 것에 대해 자연법에 근거하여 백성의 결정으로 비준된 폭군시해라는 권한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의 견해를 극복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루터는 비그리스도인만을 위하는 세속정부를 인정했다면, 칼빈은 모든 사람들 위해 세속정부는 존재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우상숭배와 바른 예배의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목적까지 가지고 있음을 확고히 했다. 둘째, 루터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찾기 어려우나, 칼빈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속관원의 직임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직임으로 보며, 상호간의 임무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무저항과 저항의 자세는 칼빈과 동일한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칼빈은 저항의 자세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점에서 확고하다. 이런 사실은 칼빈이 루터를 극복하여 교회와 세속정치와의 관계에서도 종교개혁의 분명한 것을 세운 것이다.

본 논문의 중심인 칼빈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전제속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시민정치의 차이는 크게 구별되게 보았고, 죄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음을

보았으며, 저항방식으로서 오직 성경이 결정되어 있음을 통해 그의 신학과 삶의 규범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신학의 결과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세속적 정치를 구별하는 독립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세속정치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임무를 존중하고, 상호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른 입장이 될 것이다. 이 독립성이 유지되면 교회와 세속정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정치와 교회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세속정치가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이런 세속정부에 저항하지 않고 인내와 기도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 때 오직 성경과 기도가 성도의 무기인 것이다. 법에 의해 세워진 관원들은 세속정부에 법을 통해 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칼빈의 견해를 서술하고 나서 칼빈견해의 실천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신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은 자로서 오직 성경을 먹고 사는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속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안에서 참된 진리를 전하며, 오직 성경으로만 적정과 절도의 규범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며 저항하며 산다. 이런 삶은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이 구현하는 일이다. 오직 성경을 먹고 사는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속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전하며,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만 저항하는 절제된 삶을 산다. 교회는 세속정치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므로 존경과 복종의 의무를 한다. 세속정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선을 위해 존재해야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려 주었다. 서로간에 독립성을 말하면서 세속정치와 교회의 상호간의 의무를 실천적인 의미에서 제시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직 성경만으로 전파하되, 오직 성경으로 저항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나아가 세속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모범적인 세속정치가를 양육하는 의무가 있다. 교회는 칼빈이 가지는 문화적 관조주의의 태도로 세상에 참된 진리를 주며, 삶의 원리를 세우는데 빛을 줄 수 있다. 이 세속정치에 대해서는 늘 주의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원리를 진리안에 제공해 주지만,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관조적인 자세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세속정치는 도덕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바탕으로 각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보아서 교회의 공적예배와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며, 우상숭배와 미신과 신성모독을 제어하고, 국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세속정치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 아주 부분적인 영역이지만, 신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핵심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성히 알아서 하나님 자체를 아는 일을 우리의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으로 알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항상 교회와 세상과는 보이지 않는 싸우는 관계임을 기억하고, 세속정치나 세상의 권력이 어떤 것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단임을 알아, 마귀가 우리와 싸우고 빼앗고 있는 것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경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요 상급이 되시므로 그분의 진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무기인 성경으로 견고히 살고 오직 성경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교회가 이 땅에 서있을 때, 세속정치와 교회는 각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참 고 문 헌

I. 제 1 차 자료

1. 라틴어본

Ioannis Calvini, *Coprus Reformatorum, Volumen XXIX.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umen I*, brunsigae, 1863.

Ioannis Calvini, *Coprus Reformatorum, Volumen XXX.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umen II*, brunsigae, 1864.

2. 영어본

John Calvin, *Bible Commentary, The Ages Digital Library. Books for the Age*, 1998.

_____, *Insuti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Ford Lewis Battlet, The Westminster Press, 1998.

(*The Ages The Ages Digital Library Theology*)

3. 한글어본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_____, 기독교 강요, 김종흠외 3명역, 생명의 말씀사, 1994.

_____, 성서주석,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역, 성서원, 2001.

_____, 칼뱅의 예레미야 설교, 박건택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_____, 칼빈의 사무엘 하 설교1,2,3, 김동현 역, 솔로몬,,1994.

_____,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김동현 역, 서로사랑, 2000.

_____, 칼빈의 십계명 설교, 벤자민 팔리 편역, 박희석 역, 성광문화사, 1991.

_____,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역, 솔로몬, 2002.

_____, 칼빈의 성경관, 편집부 역, 반석문화사,,1992.

II. 제 2 차 자료

1. 영어본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Baker Books, 1996.
Philip Sa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10

2. 한글어본

김명혁,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 교회와 국가,
한국 기독교 문화 진흥원 편, 엠마오, 199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1(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0.
_____,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8.
_____, 기독교강요 강독1,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_____, 교회론과 종말 강의안, 안양대 신학대학원, 2000.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김영재, 칼빈의 교회관, 이레서원, 2001.
_____,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김의환 편역, 생명의 말씀사, 2000.
_____, 기독교교회사, 이레서원, 2000.
도날드 매김,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생명의 말씀사, 1991.
로날드 S. 윌레스,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루터, 루터선집 제9권,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1983.
루터, 루터 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
트, 1999.
빌헬름 노이저, 칼뱅, 김성봉 역, 나눔과 섬김, 2000.
빌헬름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대한기독교서회, 2000.
서요한, 언약사상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유스토 L.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은성출판사, 1995.
-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_____, 개혁자들의 신학, 요단출판사, 1994.
- _____, “국가관”, 칼빈신학해설, 한국칼빈학회 엮음,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5.
- 이종성, 칼 빈,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에밀 두메르그, 칼빈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5.
-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CLC, 1998.
- _____,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 CLC, 1998.
- _____, “칼빈과 일반은총”,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기독교문화사, 1997.
- 홍치모, 칼빈과 낙스, 성광문화사, 1991.
- 헨리미터, 칼빈주의, 박윤선·김진홍 역,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 G.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3. 정기간행물

- 김성봉,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교회와 문화 제 4 호, 하나, 2000.
- 신복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1973, 6월호.
- 한성기, 칼빈신학에 나타난 정치적 질서에 대한 이해, 성경신앙 통권 제18호, 2002.
- 한철하, 칼빈의 정치론, 신학지남, 1962.

4. 논 문

- 김이태, 칼빈의 교회와 국가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 배종일, 칼빈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1.
이종성, 칼빈의 교회와 국가,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77.
홍정의, 칼빈의 신학사상을 통해 본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96.